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Vol.146 2017 July / August

Special theme

예고 없는 사고, 응급 외상 치료

#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 시원하고 활기찬 여름, 한양대학교의료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김경현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현



어느덧 2017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의 초입부터 연일 폭염 주의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니 올 여름 더위도 만만치 않을 것만 같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일수록 쉽게 지칠 수 있으니, 어느 때보다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계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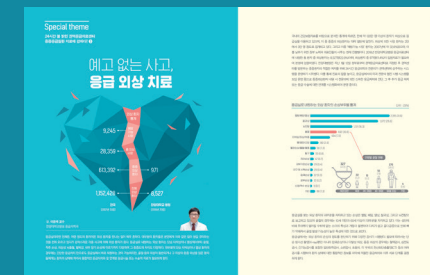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7+8월호에서는 스페셜 테마 ‘24시간 불 밝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질환 치료에 강하다!’ 시리즈의 세 번째 기획을 선보입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응급 외상 치료에 대해 한양대학교의료원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료진의 세심한 가이드를 전합니다. 불현듯 닥쳐오는 사고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양 토픽에서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식을 담았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는 개인별 맞춤 검진과 특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간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가장 적합한 검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꼼꼼한 검진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 동북부를 대표하는, 믿을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ol.146 2017 July / August

24시간 불 밝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질환 치료에 강하다! ③

## 예고 없는 사고, 응급 외상 치료



응급실로 내원하는 외상 환자는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에서부터 골절, 척추 손상, 외상성 뇌출혈, 혈복강, 내부장기 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중증도의 차이도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 환자는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도 퇴원이 가능하지만, 골절 등의 외상이 동반되거나 그 이상의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들은 상태에 따라서 통합적인 응급처치와 잘 연계된 응급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Contents

- 02 **즐거운 편지** 시원하고 활기찬 여름, 한양대학교의료원이 함께하겠습니다
-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현영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 08 **Dynamic Hanyang**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마음 걷기대회’

- 14 **Special theme ①** 외과에서 치료하는 응급 외상 질환
- 16 **Special theme ②** 신경외과 외상 치료, 시간이 곧 생명이다
- 18 **Special theme ③**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 정형외과 질환

- 20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
-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배우 구혜선과 아나필락시스
-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호산여성병원
- 28 **Dr. Opera**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이도메네오>
- 30 **Dr. Movie** 견고히 쌓은 <에이리언> 시리즈의 기원
- 32 **예술과 의학의 만남** 폴 세잔의 당뇨병
- 34 **고마운 당신에게** 한상용 신장내과, 권준교 외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 36 **오늘의 건강강좌** 갱년기와 고혈압의 상관관계
- 37 **Hanyang News** 50주년 기념사업단 발족식 개최 외
- 40 **언론 속 한양인**
- 42 **발전기금**
- 46 **한양캘린더**
-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7년 7월 1일 통권 146호  
**발행인** 김경현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www.hyumc.com **기획** 대외홍보팀 02-2290-9532~6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두렵고도 아름다운 ‘소우주’와의 전면전

김현영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1.3kg에 불과한 회백질 덩어리인 인간의 뇌는 김현영 교수에게는 우주와 같다. 상상 이상으로 방대하고, 대부분은 미지의 영역인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0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된 복잡한 조직이다. 그런 뇌를 말긴다는 건 의사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하기에, 김현영 교수는 환자와 더 뜨겁게 공감하고,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다.

글. 윤진아 사진. 이승현

## 인간의 뇌,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의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김현영 교수는 전공의 시절부터 의학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인간의 뇌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본과에서 생리학과 해부학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의학의 매력에 빠졌죠. 신경과로 진로를 결정한 것도 그때였어요. 김주한 교수님과 김승현 교수님께서 임상적인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주시기도 했고, 실습을 돌면서 은사님들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본 게 큰 울림이 되어줬습니다. 앞에 있어서,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던 은사님들 덕분에 저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을 체득한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장을 맡고 있는 김현영 교수는 후배들이 ‘환자와 공감하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감하면 한 번 생각할 걸 두 번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질환에 대한 접근방식과 치료방법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뇌졸중은 경과가 좋다가도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고,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재발 위험이 있는 질환이에요. 환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어떤 약물보다도 중요하죠.”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침묵의

저격수’, ‘시한폭탄’, ‘돌연사의 주범’ 등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지금껏 많은 죽음과 마주했지만, 김현영 교수는 첫 사망선고를 내린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전공의 시절 어느 날,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와 햇병아리 레지던트 곁에서 유명을 달리했던 한 환자를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이른 아침 환자는 결국 숨을 거뒀다. 맥없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김현영 교수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숭고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곱씹었다고 했다. 김현영 교수가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또한 “의사는 가장 위급한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과 삶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픈 이들을 대하는 모든 순간, 김현영 교수는 그 긴긴 아침 천 번도 넘게 보았을 환자의 얼굴을 떠올릴 터이다.

## 세계적 수준의 뇌질환 치료 시스템

몇 해 전 뇌졸중으로 실려 왔던 40세 남성은 김현영 교수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잔소리를 멈추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 “뇌졸중으로 말도 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태로 내원한 그 환자는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한 박사였어요. 창창한 앞길 문턱에서 쓰러져 의사 일을 못 하게 된 것은 몰

론이고,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된 채로 일생을 살게 됐죠. 뇌졸중 환자들은 대부분 성인병을 한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당뇨가 원인질환이었어요. 분명 입도 심하게 마르고 소변량도 증가하는 등 전조증상이 있었을 텐데, 본인 몸 돌볼 새 없이 공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상당한 후유증이 남았고, 환자의 삶은 달라졌다. 김현영 교수는 “이렇게 병을 키우는 예비환자가 수없이 많다”고 경고한다.

“뇌질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질환이지만, 분명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두통이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저질환들을 평소에 잘 치료하고 대처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선책입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3시간 이내에 치료하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지만 6시간을 넘긴다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는 뇌세포의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상 발병 후 한두 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가 즉시 진행돼야 후유증이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통상 6시간입니다. 환자 발견부터 병원 이송까지,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마비·언어장애·균형장애 등 증상이 다양하고 합병증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과의 의사가 함께 봐야 가장 적절



한 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고요.”

한양대학교병원 뇌혈관팀은 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총 5개 과가 협진해 뇌졸중 환자를 돌본다. 매일 모여 회의하고, 수시로 메신저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다. 뇌졸중 환자 도착과 동시에 전문 의료진이 진료를 시작한다.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응급실 도착부터 혈전용해제 치료까지의 모든 과정이 1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주는 연구

뇌졸중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의사 중 한 명인 김현영 교수이지만, 아직도 학구열은 의대생 못지않다. 아직까지도 뇌는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현영 교수는 현재 대한신경과학회 학술위원, 대한뇌졸중학회 교육위원, 대한두통학회와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대한치매학회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병원 일과를 마친 뒤 매일 밤늦게까지 최소 2개의 논문을 읽는 김현영 교수의 목표는 ‘박학다식(博學多識)’이 아닌 ‘심학다식(深學多識)’한 주치의가 되는 것이다.

“바쁜 일정 탓에 어쩔 수 없이 문어발식으로 틈틈이 연구하고 있지만,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노력합니다. 과거 뇌졸중 분야 논문들의 체계적 분석, 환자와 의사의 뇌졸중 예후 평가 비교분석,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뇌졸중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뇌의 기능과 연결구조가 많아요.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연구도 멈추지 않고 진행될 겁니다.”

공감하면 한 번 생각할 걸 두 번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질환에 대한 접근방식과 치료방법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뇌졸중은 경과가 좋다가도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고,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재발 위험이 있는 질환이에요. 환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어떤 약물보다도 중요하죠.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전합니다.



## 소통과 화합의 길 위에서 함께 걷다

###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마음 걷기대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이 개원 4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3일 교직원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5월의 중심에서 함께 걷고, 함께 웃은 사람들은 발걸음을 맞추며 즐거운 에너지를 공유한다. 글. 황원희 사진. 노상욱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일하면서 서운했던 감정이나 걱정들 또는 공유하고 싶은 즐거운 이야기를 같이 걸으며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는 순간 모두의 행복감은 높아진다고 믿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직원 모두가 건강한 에너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우리는 한마음, 한 가족

오후 한 시부터 시작되는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직, 보건직, 사무직, 기능직 등 전 직종의 교직원과 가족 300여 명이 한양여자대학교 운동장에 모였다. 오후에 비가 내린다는 일기 예보에 걱정이 앞섰지만, 출발 전 하늘은 다행히 선선한 바람과 햇살을 선사했다.

올해 걷기대회는 한양여자대학교 운동장을 출발해 중랑천 옆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반환점인 응봉산 정상에 팔각정을 돌아오는 코스이다. 왕복 6km 정도로 거리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응봉산을 오르는 급경사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상에 오르는 끈기가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이광현 병원장은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일하면서 서운했던 감정이나 걱정들 또는 공유하고 싶은 즐거운 이야기를 같이 걸으며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는 순간 모두의 행복감은 높아진다고 믿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직원 모두가 건강한 에너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교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땀을 식혀줄 쿨 타월은 물론 바나나와 초콜릿 바, 비타민 드링크제, 생수 등 다양한 간식을 준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모두가 운동장에 널찍이 자리를 잡고, 국민체조를 하며 몸의 긴장을 풀었다. 걷기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 안전한 완주를 목표로 누구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열심히 스트레칭을 이어갔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선두 그룹부터 차례대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응봉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 각자의 방식으로 웃고 걷는 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마주한 여유는 모두를 미소 짓게 했다. 중랑천을 따라 이어진 길은 만발한 봄꽃과 살랑살랑한 봄바람의 조화로 상쾌한 기분을 전해주었다.

병원에서 매일 보던 직장 동료들 타트인 공간에서 만나자 얼굴의 표정도, 대화의 주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표정은 밝아졌고, 목소리엔 활기가 넘쳤다.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닌 등산이나 자전거 등 평소 취미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모여 사진을 찍으며 추억도 남겼다.

부서를 옮긴 뒤 오랜만에 만난 동료는 반가운 마음을 숨기는 법 없이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엄마와 어린 딸은 간식을 나눠 먹으며 애정을 뽐냈다. 걷는 속도와 대화의 주제는 다르지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즐거운 소통을 하고 있었다.

“날씨가 좋아서 길을 때마다 기분이 더 좋아져요. 걷기대회는 처음 참여하는데 병원 안에서만 만났던 직장 동료와 함께 걸으니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병원 밖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좋은 에너지를 얻어 가요.”

국제병원 행정지원팀 김도희 사원과 김에리 사원은 기분 좋은 공간에서 함께 길을 걸으며, 더욱 돈독해짐을 느낀다고 말한다. 일상에서 벗어난 오늘 하루가 조금은 특별해진 셈이다.

##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다

반환점인 응봉산 정상에 다다를 즈음 파랗던 하늘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옷과 우산을 챙겨온 직원들은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동료를 위해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며 우산을 나눴고, 외투를 함께 걸치며 비를 피하기도 했다. 그칠 줄 모르는 장대비에 한양여자대학교 운동장 대신 한양초등학교 강당에서 다과회와 경품 추첨 시간을 갖기로 했다. 고생한 교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김근호 부원장은 “건강하게 오래 즐겁게 삽시다. 한양대학교병원을 위하여!”를 외치며 직원들을 다독였고, 비까지 맞으며 완주에 성공한 직원들은 간식으로 제공된 치킨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걷기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행운권 추첨이 시작되었다. 응봉

산 정상에서 받았던 번호표가 행운권이 되었고, 상자 안에 있는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해 자신의 번호가 불리면 경품을 받는 방식이었다.

마스크팩부터 체중계, 백화점 상품권, 선풍기, 에어 프라이어 그리고 자전거까지 다양한 경품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번호가 하나씩 불릴 때마다 강당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채워졌다. 당첨 여부를 떠나 서로를 축하하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기며 직원들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반환점을 돌아오는 길에 비가 와서 고생이 많았지만, 덕분에 더욱 기억에 남는 오늘이 된 것 같아요. 직원들이 소통하고 화

합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력이 된다면 하반기에도 대회를 준비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한양대학교병원을 만들어 가고 싶네요. 오늘 참여한 직원과 가족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광현 병원장의 인사말을 끝으로 소통과 화합의 한마음 걷기대회는 마무리되었다. 곳은 날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과 가족들은 이날의 기억을 추억으로 간직하며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병원에 한 발짝 다가섰다. 📱



## Mini Interview

신희숙 파트장  
중환자실



김진 기능원 가족  
간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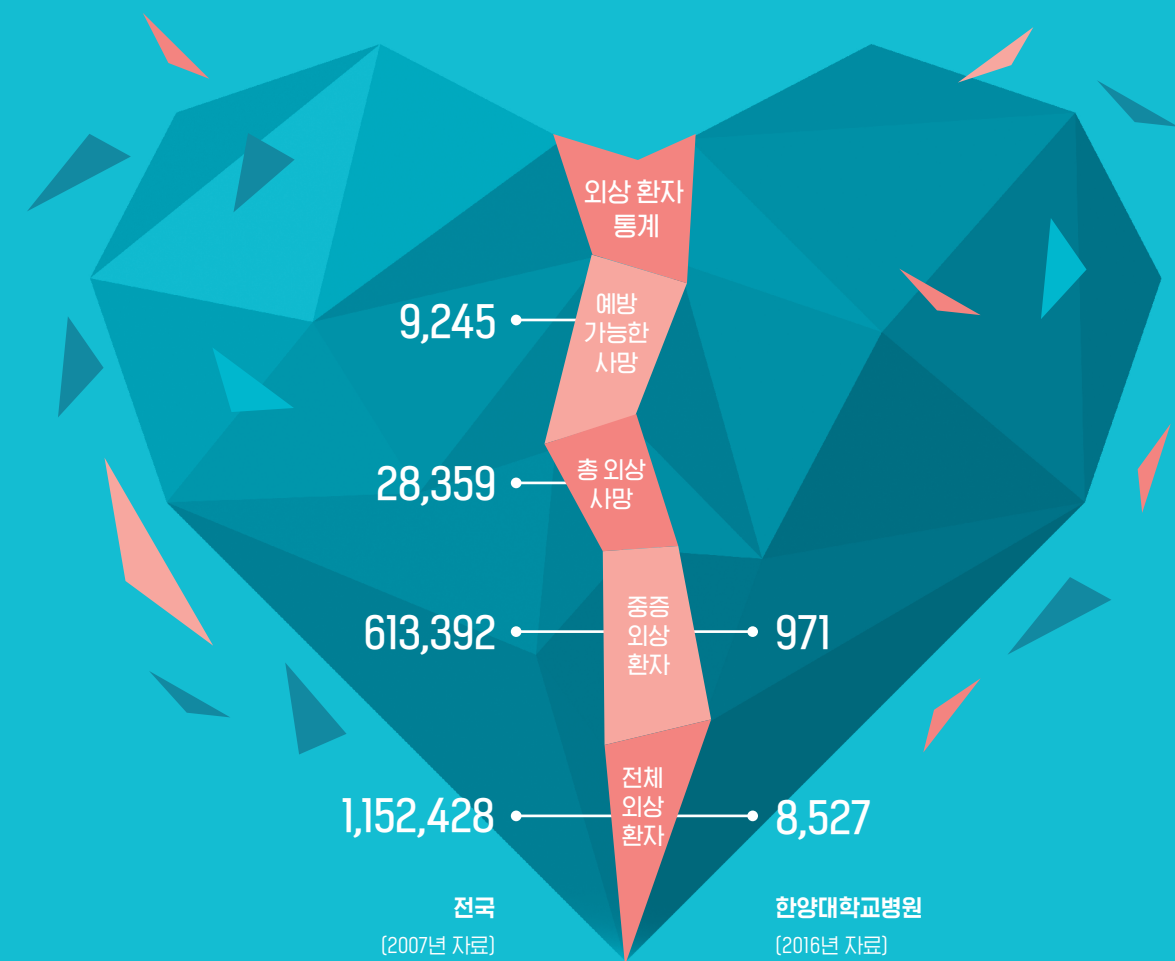
“행운권에 당첨되어 에어 프라이어를 받았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니 더 기쁘네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의 걷기대회라니, 더욱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작은 바람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걷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간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개최되었으면 좋겠어요. 병원 특성상 모두가 자리를 비울 수 없기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에요.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병원 밖에서 직원들을 만나니 병원 내에서 인사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죠. 가족들과는 처음 같이 참여하는데 특히 아들이 좋아했어요. 아빠가 일하는 곳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 볼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걸을 때도 힘들어하지 않고, 잘 걸어서 대견하기도 했고요. 내년에도 함께 참여할 생각이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행운권 추첨도 기대해보겠습니다.”



# Special theme

24시간 불 밝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질환 치료에 강하다!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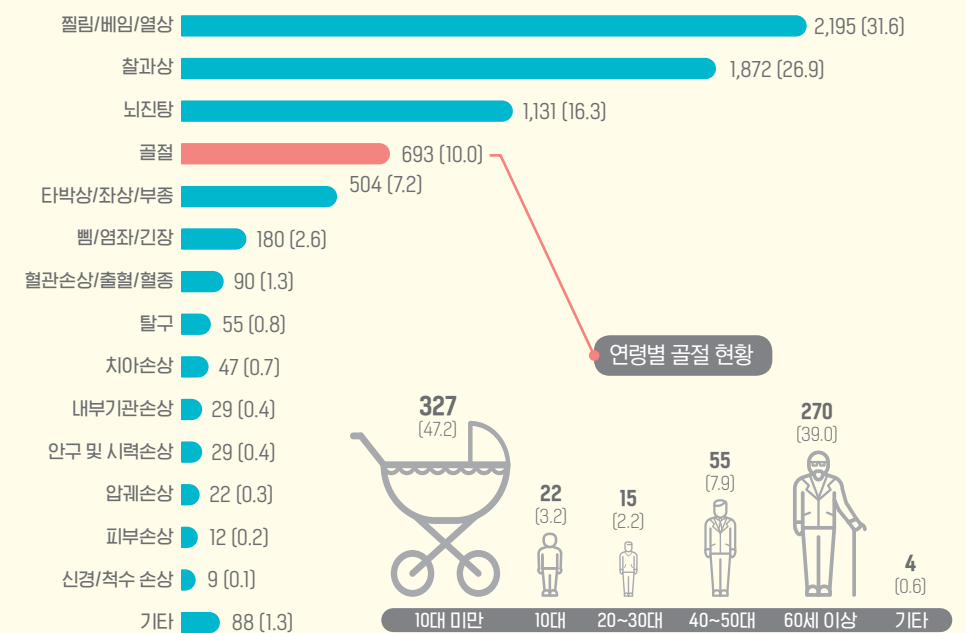


글. 이윤재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응급실이라면 언제든, 어떤 정도의 환자든 외상 환자를 만나는 일이 매우 흔하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본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각종 사고에 의해 외상 환자가 된다. 응급실로 내원하는 외상 환자는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에서부터 골절, 척추 손상, 외상성 뇌출혈, 혈복강, 내부 장기 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중증도의 차이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 환자의 경우에는 간단한 응급처치 만으로도 응급실에서 바로 퇴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골절 등의 외상이 동반되거나 그 이상의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들에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통합적인 응급처치와 잘 연계된 응급수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국내의 건강보험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한해 약 12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외상으로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중증의 외상환자는 대략 절반에 달한다. 외상에 의한 사망 환자는 2만에서 3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이중 '예방가능 사망' 환자는 2007년에 약 32.6%였으며, 이를 낮추기 위한 정부 노력과 의료진들의 사투는 현재 진행형이다. 2016년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총 환자 중 외상환자는 8,527명(22.8%)이며, 외상환자 중 971명(11.4%)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12일 정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권역센터를 방문하는 중증환자의 적절한 처치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권역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진료의 질을 높이고, 응급실에서의 타과 전문의 협진 시행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중증외상환자 내원 시 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진단, 그 후 추가 응급 처치 또는 응급 수술에 대한 연계를 시스템화하여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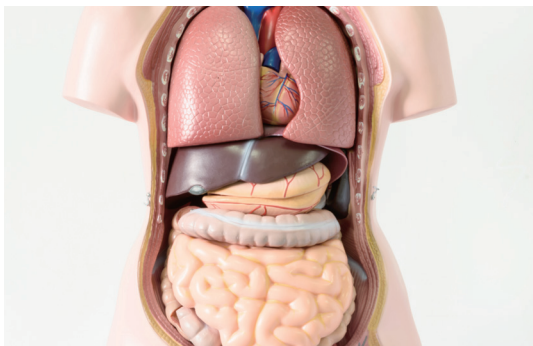
응급실로 내원하는 외상 환자의 손상부위별 통계 단위 : 건(%)



응급실을 찾는 외상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손상은 찰림, 베임, 열상, 찰과상, 그리고 뇌진탕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골절의 경우에는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아의 특성과 거동이 불편하여 다치기 쉽고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져서 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에서는 외상 환자의 손상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시행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순 방사선 촬영(X-ray)뿐만 아니라 압박손상이나 다발성 외상, 중증 외상의 경우에는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간기능검사를 포함한 일반화학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각 부위의 전산화 단층 촬영(CT) 등의 여러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응급처치와 이후 치료 단계를 결정하게 된다.

## 외과에서 치료하는 응급 외상 질환



외과에서 치료하는 응급 외상 질환은 위장관, 간 담도, 췌장 및 비장, 소장, 대장 및 혈관과 관련한 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소아 외상 질환도 외과에서 치료하는 응급 외상 질환이다. 외과에서 다루는 다양한 응급 외상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글. 최동호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복부 외상은 크게 둔상과 관통상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복강 내 장기는 천공, 열상을 입을 수 있고 주변 혈관 역시 그로 인하여 심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위장관, 소장, 대장의 경우는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의심할 수 있지만 어떠한 영상의학적 검사도 정확한 손상 정도나 위치를 확정할 수는 없어 정확한 진단이 힘들다. 하지만 간, 췌장, 비장의 손상은 비교적 위치 파악이 쉽고 영상학적으로 장관의 손상보다는 진단이 용이하지만 대부분 외상의 정확한 손상 정도나 위치 파악은 수술 중에 이루어 진다.

### 위장관

#### 위

해부학적 구조상 위는 매우 신축성이 좋고 튼튼한 기관이다. 따라서 위의 천공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칼 등에 의한 관통 손상이며, 둔상에 의한 천공은 드문 편이다. 일단 천공이 발생하면 위 내용물의 복강 내 유출로 인해 복강 내 전체가 감염되는 범복막염을 일으키게 되며, 이 경우 복막 자극 증상으로 인해 복부 전반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위장에 천공이 생기면 반드시 응급 수술을 필요로 하며 천공 부위 일차 봉합술 혹은 위 절제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 십이지장

십이지장 손상은 국내에서는 위의 경우처럼 대부분 자상이나 둔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많은 원인 중 하나로 교통사고를 들 수 있다. 십이지장은 복부 전면에서 압력을 받을 때 복벽과 척추 사이에서 압착되어 천공이나 파열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십이지장은 후복막강 중심부 깊은 곳에 위치하여 주위 여러 기관들과 조직으로 싸여있어,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비특이적인 소견을 보이며 진단하기가 어렵다. 전체 십이지장 천공의 80% 정도는 일차 봉합술로 치료가 가능하나, 나머지 20% 정도는 동반된 췌장 및 담도 손상으로 주변부 장기 절제를 요구하는 매우 복잡한 술식을 필요로 하며, 이 경우 높은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인다.

### 간, 담도, 췌장, 및 비장

#### 간, 담도

간 및 담도는 복부 외상 시 비장 다음으로 흔히 손상받을 수 있는 장기이다. 간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환자 생

체 징후가 불안정할 경우 응급 수술을 요하며, 수술 방법은 환자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2차 수술을 고려한 단순 지혈술부터 간절제술까지 고려할 수 있다. 생체 징후가 안정적일 경우,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CT) 등을 통해 손상 정도에 대한 평가를 시행 후 추후 치료 계획을 선택하게 된다. 최근 생체 징후가 안정적인 간 손상 환자의 경우 간동맥 색전술 및 절대 침상 안정 등 보존적 치료의 성공률이 87~93%까지 높게 보고되고 있으나, 지연성 출혈 및 간농양 형성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에 관한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

#### 췌장

췌장의 손상은 전체 외상의 약 0.4% 정도로 낮은 비율이지만, 발생 시 사망률은 약 16.6%에 이른다. 이러한 췌장 손상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주췌관의 손상이며, 이는 임상소견이 비특이적일뿐만 아니라 진단이 어렵고 지연될 확률이 높아 그 위험성이 더 높다. 또한, 췌장 손상의 경우 대부분 복부의 타 장기의 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는 췌관 손상의 정도, 생체 징후 및 동반 장기 손상 등의 전반적인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후 진단적 개복술 통한 부분 췌장 절제술 혹은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췌장 손상의 경우 가성낭의 형성 등 치료 후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 치료 후에도 일정 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 비장

비장은 복부 외상 환자의 약 23.8%를 차지하며, 복부 외상 시 가장 흔히 손상 받을 수 있는 장기이다. 생체 징후가 불안정한 비장 손상 환자의 경우 비장 적출을 시행하는 응급 수술을 요하며, 빠른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률이 10% 이상 올라간다. 생체 징후가 안정적일 경우,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CT) 등을 통해 정확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환자의 상태, 출혈 여부, 가성류의 형성 여부 등에 따라 비장혈관 색전술 또는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게 된다. 보존적 치료 시에도 지연성 출혈, 비장농양 형성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원 및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 치료 후에는 비장적출술을 시행받은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 소장, 대장, 결장

#### 소장, 대장

관통상의 경우 복막을 관통 했는지 여부에 따라 복강 내 소장 천공을 확인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둔상의 경우 복막의 천공 여부와 상관 없이 1~5% 정도로 소장 천공의 발생 빈도를 보여 수술적 처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둔상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복강 내 소장 및 창자간막 손상이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충격이나 주변 충격이 전달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복강 내압이 증가해 발생하는 경우다. 복강 내 세척, 복부 초음파, 복부 CT 촬영 등으로 복강 내 장기 손상을 진단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정확한 손상 위치나 정도는 대부분 수술 중에 이루어진다. 진단 및 처치가 늦어지면 소장 내 내용물이 복강 내로 들어가 점차 추가적인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어 빠른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성인의 소장 길이는 6~7m정도 된다. 소장의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소장의 길이가 짧다면 단장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결장

둔상에 의한 결장 손상은 드물며 모든 중대한 둔상의 0.5% 또는 개복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10.6%에서 진단된다. 결장 손상의 대부분은 관통상에 기인한다. 결장 손상보다 더 높은 패혈성 합병증 비율을 동반하는 다른 장기 손상은 없고 진단 또한 쉽지 않다. 결장 손상의 진단은 거의 언제나 수술 중에 내리고 복막 후 결장의 작은 손상은 조기 임상 징후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결장 손상을 보다 빠르게 진단하고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패혈성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데 중요하지만 빠른 진단이 쉽지 않다. 결장의 모든 중대한 손상은 18시간 이내에 임상적으로 분명해 진다. 결장 창상은 손상 정도나 위치에 따라 장루 형성이 필요한 광범위한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일차 봉합만으로 수술을 종료할 수도 있다.

### 혈관

복부 안에 존재하는 혈관들은 많은 부분이 후복막강에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도 많아 추가적으로 수술적인 조작을 가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열상에 의한 혈관 손상은 대량 출혈이 발생되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외과에서 치료하는 응급 외상 질환은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제일 중요하고 초기에 수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야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다. 외과의사의 경험과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진단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

## 신경외과 외상 치료, 시간이 곧 생명이다



응급실로 내원하는 중증의 신경외과 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외부의 충격없이 증상이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와 외상, 즉 외부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 두부나 척추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전자를 자발성, 후자를 외상성 환자로 표현하며 이 글에서는 신경외과에서 다루는 응급 외상성 질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글. 정진환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 두개골 골절

교통 사고나 추락사고, 구타 및 상해, 또는 운동시 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 또는 MRI를 촬영하게 된다. 이때 두개골 골절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는다. 단, 하루 이틀 정도는 집중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두개골 골절에 의해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피가 고이는 경우에는 출혈의 양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그러나 2~3일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시행한 CT 또는 MRI 에서도 출혈의 소견이 없으면 대부분 후유증 없이 퇴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개골 골절이 방사선 검사상 함몰 골절(골절된 두개골편이 정상 두개골 아래로 내려앉은 경우) 골절편이 뇌를 압박하여 향후 간질의 위험이 있으며, 압박받은 뇌가 이차적으로 부어올라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함몰된 골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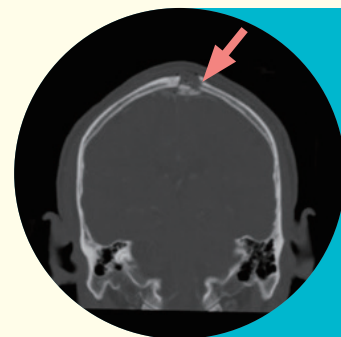


사진 1

골절된 두개골편이 정상 두개골 아래로 내려앉은 경우

두개골 골절이 두피 열창을 통해 외부와 통해져 있는 개방성 골절인 경우 뇌를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구조가 파열되면서 골수염, 수막염, 혹은 뇌농양의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반드시 개방부위의 두개골을 다량의 수액으로 세척 및 창상 부위 봉합이 필요하며 골절된 두개골의 오염도가 심한 경우는 두개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하게 된다.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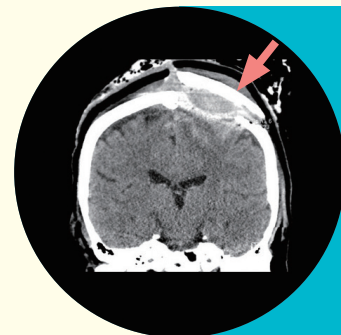


사진 2

두피의 열창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해 뇌가 외부로 노출된 경우

### 뇌경막상 출혈

인체의 뇌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막은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바깥쪽의 막이 경막이다. 경막은 상당히 질기고 두껍기 때문에 경막의 위쪽, 즉 뇌와 직접 닿아있지 않는 경막상 출혈은 뇌의 직접적인 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이다. 뇌경막상 출혈은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두개골과 뇌를 싸고있는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이고, 선지와 같이 굳으면서 뇌를 압박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사진 3) 경막상 출혈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는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출혈량과 위치에 따라 혼수 상태가 초래되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경막상 출혈은 내원 당시의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경우라도 혈종이 늦게 형성되거나, 출혈이 커져서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흔하다. 수술은 두개골을 열고 혈종을 직접 제거해야 하며 출혈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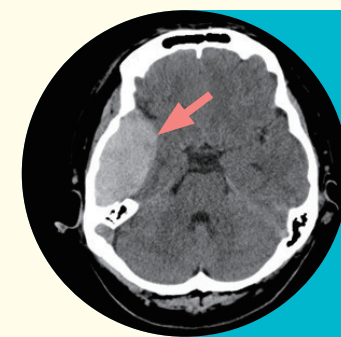


사진 3

뇌를 싸고 있는 경막 위로 피가 덩어리를 형성하여 뇌를 압박하는 경우

### 뇌경막하 출혈

뇌경막하 출혈이란 뇌를 싸고 있는 경막 아래쪽으로 피가 고인 것을 말하며 보통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로 구분한다. 급성 경막하 출혈은 외상성 뇌출혈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경우로 보통 사망률이 60%를 넘으며 설령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증의 후유 장애를 남기는 아주 위험한 뇌출혈이다. 시간을 다투어 수술하여야 하며 혈종 제거 후에 출혈의 원인을 찾아 반드시 지혈을 해야 한다. 출혈 제거 후에도 뇌부종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하므로 수술 시 두개골을 닫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수술 방법이다. 두개골을 제거하여도 이차적인 뇌부종으로 인해 사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진 4) 만성 경막하 출혈은 주로 노년층에서 관찰되며 알콜 중독, 간질 환자, 장기적으로 아스피린계열 약물 투여 환자, 치매 환자 등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경미한 두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약 반수의 환자들은 자기가 언제 다쳤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만성이란 말에서 드러나듯이 두부 외상 후 약 3주 내외 경과한 이후

진단될 수 있으며 서서히 편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증세가 발생되어 중풍으로 오인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사진 5). 고령의 환자에서 간혹 볼 수 있으며 급성 경막하 출혈과는 달리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출혈을 빼주는 천공 배액술만으로 회복이 가능하나 재발의 빈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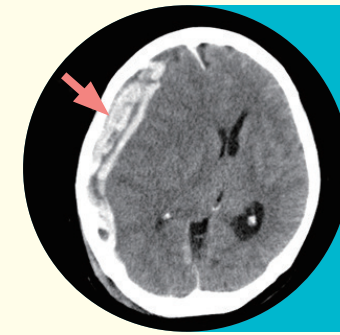


사진 4

뇌를 싸고 있는 경막 아래로 피가 덩어리를 형성하여 뇌를 압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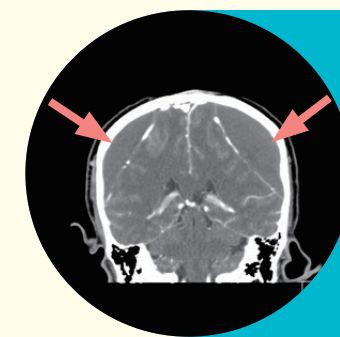


사진 5

자연성으로 발견된 경막하 출혈의 경우

###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마지막으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두부 손상 후 흔히 관찰되는 외상성 뇌출혈로 뇌를 싸는 막의 한 종류인 지주막 아래를 지나가는 작은 혈관의 손상으로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두부 손상 후 관찰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뇌동맥류가 터져서 초래되는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구분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뇌 CT로 발생 원인을 구분할 수 있으며 뇌동맥류가 터져서 발생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치명적인 재출혈 방지를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뇌동맥류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수술보다는 약물치료를 하게 된다. 일부의 경우 뇌동맥류가 터질 때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이차적으로 뇌손상을 당하여 마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양상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출혈 양상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해 뇌동맥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 6)

##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 정형외과 질환



정형외과에서는 팔, 다리, 골반, 척추 등의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을 접하게 된다. 이중에서도 교통사고나 추락, 스포츠 활동 중 외상으로 인한 손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많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폐쇄성 단순 골절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응급이나 긴급 수술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방성 골절이나 신경, 혈관 손상 등이 진단된 환자들은 손상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 신속한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글. 황규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많은 사람들은 출혈이 많은 외상, 혈관 손상, 절단 등 겉으로 보기에 심각한 외상이 있는 경우에만 정형외과적으로 응급 또는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폐쇄성 골절이더라도 내부의 출혈 및 연부 조직의 부종으로 인해 혈액 순환의 장애가 동반된다면 응급 수술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괴사가 진행돼 돌이킬 수 없는 이차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골반 골절이 발생한 환자에서 많은 양의 내부 출혈이 일어나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구획 증후군

구획 증후군은 대표적인 정형외과적 응급 질환이며 진단이 되면 바로 근막 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골절, 근육, 신경과 혈관에 대한 평가 또한 신속하게 필요하다. 구획 증후군은 손상 후 조직 내 압력은 높아지고 산소 분압은 낮아져 근육이나 신경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는 상태로, 대개의 경우 다치자마자 발생하지 않으며 서서히 조직의 압력이 높아져 발생하므로 의료진의 경험과 세심한 진찰이 요구되는 질환이다. 만일 의료진이 구획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상적으로 구획 증후군이 의심되는 구획 내의 근육을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매우 심한 통증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으며 다친 부위 이하의 이상 감각, 창백 등으로도 진단할 수 있다. 압력의 직접 측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구획 내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 진단법이라 할 수 있다. 진단 후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근막 절개술을 시행하여 조직 내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근막 절개에 의한 감압으로 신경이나 주변 근육 조직 등의 괴사를 막아 이차 손상을 예방해야 한다.

### 혈관 손상이 동반된 골절

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허혈은 조직의 괴사를 유발하고 괴사가 진행되면 괴사 부위를 절단하게 된다. 따라서 혈관 손상 환자에서 사지를 보존하려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골절 또는 탈구와 혈관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다친 시각부터 혈액 순환이 재개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혈관 손상과 골절의 처치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의료진의 팀 워크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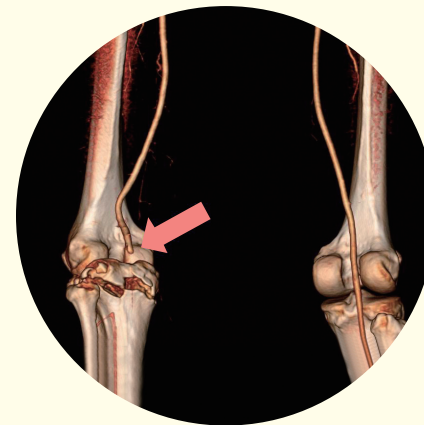


그림 1.

좌측 슬관절 골절-탈구와 동반된 슬와 동맥 폐색

하다. 혈관 손상이 확인되면 혈관을 봉합하거나 이식을 통해 재관류를 시키는 수술이 필요하며 동시에 골절 부위의 안정화를 위한 외고정술이나 적절한 내고정술이 필요하다. 적절한 응급 수술로 혈관 손상 부위가 안정화되고 혈액 순환에 문제가 없을 때, 골절이나 탈구에 대한 처치로 환자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슬관절 부위 골절-탈구가 발생한 경우 많은 사례에서 슬와 동맥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탈구를 정복하고 슬와 동맥의 손상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그림 1).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는 진단이 늦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개방성 골절

일반적으로 개방성 골절은 축격을 다투는 초응급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개방창이 있는 경우 창상에 대한 적절한 변연 절제술과 세척술이 필요하며 외부 환경에 노출된 골조직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 외고정술을 시행하여 골절된 골조직으로 인한 이차적인 근육, 신경, 혈관 손상 등을 예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개방성 골절은 다친 후 수술까지의 시간보다는 변연 절제술과 오염된 조직의 적절한 제거가 예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응급실 상황에서는 초기 평가와 적절한 수술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라 할 수 있다.

### 정복되지 않는 관절의 골절-탈구

관절이나 관절 주위의 골절에서 탈구가 동반된 환자도 응급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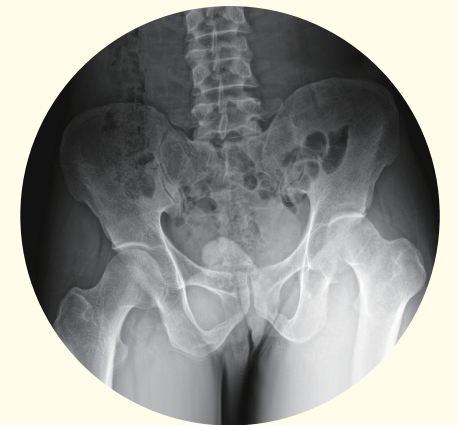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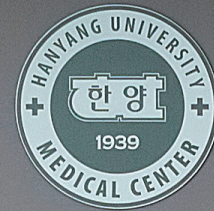
좌측 고관절 골절-탈구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관절의 골절-탈구 진단 후 적절한 정복이 가능하지만 가끔은 탈구된 관절의 정복이 용이하지 않아 응급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골절편이 관절 내에 남아있어 정복을 방해하거나 관절 주위 연부 조직, 즉 관절막이나 인대가 골절 사이에 끼여 정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탈구된 관절을 오랜 시간 둘 경우 관절의 연골 손상, 관절로 가는 혈액 공급의 차단, 주변 조직의 심각한 부종 등이 발생하여 향후 정상적인 관절 기능의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정복이 용이하지 않은 골절-탈구는 고관절 부위의 골절-탈구가 빈번하며(그림 2) 족관절 손상도 경우에 따라 정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복이 되지 않는다고 무리한 힘을 가해 정복을 시도하면 이차적인 골절이나 주변 조직의 추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복이 용이하지 않다면 전신 마취 하에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대퇴 경부 골절이나 거골 경부의 골절 역시 정형외과적으로 신속하게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며 골조직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풍부하지 않아 무혈성 괴사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골반골 골절 시 골반 주위 혈관이 파열되었거나 매우 심한 골절일 경우 골조직 자체에서 출혈량이 많아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진은 적절한 외고정이나 압박 장치를 사용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파열된 혈관의 색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앞서가는 의술을 펼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핫이슈를 소개합니다.



## 건강증진센터



##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 수준 높은 건강 검진으로 실현한다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평소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 검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동북부 지역의 거점병원이자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올해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했다. 개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를 찾았다.

글 정리희 사진. 김지원

경기동북부 대표 건강증진센터를 꿈꾸며

신축건물의 당당함이 외관에서부터 느껴진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Health Promotion Center)는 올해 새롭게 지어진 신관에 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구석구석 알차게 배치한 공간 구성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 각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역 주민을 위해 5대 암 검진을 비롯해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앞장서서 운영해왔습니다. 대개 40세 이상이면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 중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없느냐?’고 문의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은창수 센터장이 건강증진센터 개소 배경을 찬찬히 설명한다. 소화기내과 교수이자 전문의인 은창수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 개소 이전부터 건강검진센터장을 맡아 건강증진센터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전에도 국가건강검진이 포함하지 않는 심도 있는 검진을 받고 싶은 이들의 목소리는 컸다. 그러나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신규 센터 개소가 쉽지 않았던 상황. 그러나 신관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건강증진센터의 꿈도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경기동북부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대학병원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관 신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원장단을 포함한 병원 구성원 모두가 이번 기회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죠.”

신규 건강증진센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노력

대의는 분명했기에, 센터 구축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열정 역시 높았다. 사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여타 병원보다 비교적 늦게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후발주자의 장점도 있다. 기존 병원이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사전에 분석할 수 있기에, 좀 더 발전한 형태로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까닭이다. 실제로 은창수 센터장을 주축으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 구성원은 주요 병원의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펼쳤다.

“가까운 한양대학교병원은 물론이고, 우리 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병원을 주로 찾아 어떻게 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죠. 방문한 분들이 신속하면서도



수준 높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센터 동선부터 꼼꼼하게 따져봤어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인 검진을 받으러 온 이들의 동선을 고려해 건강증진센터와 국가검진센터를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각각 분리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층을 오가며 검진이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방문객들의 검진 목적에 따라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나눈 것이다.

“방문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도 수차례 수정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할당된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었죠.”

장지희 팀장이 다소 수고로웠던 그간의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대학병원의 위상에 걸맞은 최신 장비 도입은 당연했다. PET-CT와 CT, MRI 등의 장비는 기본적인데, 새로 개소하는 센터이니만큼 가장 최신의 장비가 들어온다.

맞춤 상담으로 최적의 검진 프로그램 추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준비하며 가장 고심한 부분은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이미 오랜 기간 국가건강검진을 해왔기에, 은창수 센터장은 방문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조건 고가의 검진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으로 기존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는 한정된 검진 프로그램 안에서 선택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이곳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개인별 맞춤 검진과 특화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전문 상담 간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가장 적합한 검진 프로그램을 선별해주는 것이다.

“성별과 연령, 관심 분야에 따라 특화된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도 물론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비슷하고 성별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검진 프로그램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력과 생활 습관, 가족력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검진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전문 상담 간호사와 직접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검진이 무엇인지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검사 결과에 따른 진료 연계와 협진 체계

경기동북부에도 건강 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지속적으로 건강증진센터 설치를 기대했던 까닭이 있다. 대학병원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진료부서간의 신속한 협진이 가능하다.

“아주 간단한 예로, 대장내시경 후 용종을 발견했을 때, 용종 절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 이중으로 시간과 노력

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검진부터 용종 제거까지 수준 높은 의료진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결과를 통보하고 병원 예약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죠.”

중증 질환이 의심될 경우, 전문센터의 교수진에게 신속하게 협진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도 대학병원이기에 가능한 장점이다. 나이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주치의 교수의 결과 상담 서비스로 평생 건강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과거보다 건강 문제를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에 이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는 증상이 없어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것도 건강증진센터의 한 가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 등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일대에 유입되는 인구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를 찾는 이들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밀검사부터 진료와 치료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다. 🏥

프로그램	검사내용	시간
기본검진	· 기초검사 : 신체계측 (신장, 체중, 비만도) 인과(시력, 안압, 안저), 청력, 소변검사(요단백, 잠혈, 적혈구, 백혈구 등) · 심혈관계 : 혈압, 심전도 · 호흡기계 : 폐기능, 흉부촬영 · 소화기계 : 상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대변검사 · 혈액검사 : 빈혈, 전해질, 고지혈증, 간기능, 당뇨, 갑상선기능, 간염(A,B,C 형), 신장 기능, 면역항체(매독, 에이즈), 류마티스인자, 통풍, 적혈구 침강속도, 종양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 구강검사 · 여성 : 부인과 검사(자궁경부암 검사), 유방X선 촬영,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2~3시간
정밀검진	· 기본검진 + 저선량흉부 CT,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검사 여성 : 유방초음파, 골반초음파 남성 : 전립선초음파	4~4:30시간
암 기본검진	· 정밀검진 + 대장내시경(수면) 흉부 CT, 복부 및 골반 CT	4~4:30시간
암 종합검진	· 암기본검진 + 뇌 MRI/MRA	4:30~5시간
암 정밀검진	· 암종합검진 + 전신 PET-CT	4~4:30시간

프로그램	검사내용	시간
뇌 정밀	뇌 MRI/MRA/dissusion, 경동맥초음파, 치매조기진단검사	3:30~4시간
심장 정밀	심혈관위험인자, 심장초음파, 심장동맥CT(또는 SPECT), 경동맥초음파	3:30~4시간
소화기 정밀	대장내시경(수면), 복부 및 골반CT	3:30~4시간
흡연자 정밀	종합검진+폐기능검사, 저선량흉부CT, 관상동맥CT, 경동맥초음파, 골밀도검사	3~3:30시간
여성 정밀	종합검진+갑상선초음파, 골반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여성호르몬검사	2:30~3시간
청소년 정밀	기초검사 : 신체계측 (신장, 체중, 체성분 검사(체지방률, 체질량 지수, 비만도, 복부지방률)) 안과 (시력, 안압, 안저), 청력 심혈관계 : 혈압, 심전도 호흡기계 : 흉부X선 촬영 소화기계 : 상복부초음파 (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대변검사(잠혈, 가생충) 혈액검사 : 혈액형 빈혈, 백혈구 혈소판, 고지혈증, 간기능, 당뇨, 갑상선 기능, 간염(A, B, C형), 신장기능, 류마티스인자, 통풍, 적혈구 침강속도, 알레르기 검사, 풍진, 홍역, 볼거리 기타 : 전신적추X선 촬영	2시간
유학생 정밀	종합검진+심혈관위험인자 여성 : 골반초음파	2시간
예비부부 정밀	남성 : 종합검진+호르몬검사, 정액검사, 심혈관위험인자, A형간염 검사 여성 : 종합검진+골반초음파, 호르몬검사, 철결핍성 빈혈, 풍진검사, 볼거리, 심혈관위험인자, A형간염검사	2~2:30시간
류마티스암 정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암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흉부CT, 복부 및 골반CT,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유방초음파 유방X촬영, 자궁경부암검사	3:30~4시간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으로  
그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 아나필락시스

배우 구혜선과 아나필락시스


인간의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몇몇 알레르기 질환은 위독한 상황을 유발하기도 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정리. 편집실

최근 방영 중인 MBC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는 스타 가수와 그녀의 모창 가수, 이 두 주인공의 애증과 연민이 얹히고 설킨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브라운관에 오랜만에 돌아온 엄정화가 당대의 최고 스타 가수 유지나로, 배우 구혜선이 모창 가수 정해당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방영 초반 구혜선이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구혜선의 병명은 이름도 생소한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 알레르기는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중증도도 천차만별이다.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도 실제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아나필락시스이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급격하고 전신적인 과민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며 다른 알레르기 질환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흔한 원인 물질로는 식품, 약물, 벌에 쏘이는 것, 운동 등이 있다. 이러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되

면 두드러기, 혈관 부종 등 피부로 증상이 나타난다. 그외에도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할 수 있고 복통, 구토,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나 심한 경우 어지럽고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가 발생하기도 한다. 간혹 이러한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순식간에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아나필락시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식품, 약물, 벌에 쏘이는 것, 운동 중 어떤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병력 청취와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야 치료 또는 예방이 가능하다. 식품이나 약물 알레르기로 확인된 경우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등 주변에서도 이를 알고 있어야 쇼크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환자는 응급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제가 가장 흔히 쓰이는 응급약이다. 



##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해

김상헌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 아나필락시스의 진단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전신 과민반응'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가장 중증도가 높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유병률 통계를 얻기는 어려우나 평생 유병률이 약 0.05~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예상보다 그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필락시스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에 비해 환자나 일반인들뿐 아니라 의료인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이때문에 아나필락시스의 적절한 치료와 효과적인 예방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아나필락시스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널리 보급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국제학회를 중심으로 아나필락시스 진료지침이 제정되기도 했다.

### 아나필락시스의 치료

아나필락시스는 빠른 치료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진단하자마자 지체 없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아나필락시스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진단 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의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아나필락시스는 임상 양상이 매우 다양한데,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단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혈액이나 소변의 트립타제나 히스타민의 혈액이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혈액 채취 시점에 따라 검사결과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나필락시스의 치료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할 치료는 에피네프린 근육주사다. 에피네프린은 정확한 투여 시간과 용량을 기록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1~2회 에피네프린 근육주사에 반응하지만, 두 번 이상의 용량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입 펌프를 이용하여 경정맥에 지속 투여할 수 있다. 환자는 누운 상태에서 하지 올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호흡곤란이 있거나 구토하는 경우에는 엎거나 기대는 편한 자세를 취해도 좋다. 환자가 갑자기 서

거나 앉을 때 어지러움과 함께 쓰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차적인 치료인 에피네프린 투여 후 이차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에는 산소, 경정맥 수액, 흡입 기관지 확장제, 항히스타민제, 전신 스테로이드 등이 있다. 이들 치료를 추가하면서 자주 환자의 증상과 호흡 상태, 혈압, 맥박과 산소포화도 등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과 흉부마사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관찰·관리

증상이 호전된 후 다시 나타나는 이상성(Biphasic) 아나필락시스는 전체 환자의 3~20% 정도이며 성인에서 더 흔하다. 따라서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다시 악화되지 않는지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실 등 병원시설에서 관찰하는 시간은 환자의 초기 상태와 치료반응, 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최소 4시간은 지켜보도록 권장된다. 일반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최소 6~8시간, 저혈압이 있었던 경우는 최소 12~24시간의 관찰 시간이 필요하다.

퇴원 후 다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 내원 전에 환자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자가 치료 준비가 필요하다. 퇴원 시 환자에게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를 처방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에피네프린은 우리나라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약국에서 구입이 어려우므로 환자에게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한다. 일회용 주사기 형태로 되어 있으며 0.3 mg의 성인용과 0.15 mg이 포함된 소아용 제품이 현재 국내에서 구입 가능하다.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병원 내 의무기록에는 해당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다른 의료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인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기록하여 약물이 원인이었다면 경우 반복 투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상호 협력하는 의술로  
고객의 건강과 삶을 돌봐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고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 가장 숭고한 순간,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으로



###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호산여성병원

산부인과 의사의 가장 큰 사명은 생명의 탄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에서 둘로 분리되는 그 숭고한 순간을 함께하는 의료진은 산모와 아이 두 생명을 지켜내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다. 호산여성병원 방장훈 병원장은 “임신의 순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다른 진료과보다 오랫동안 의료진과 만나야 하는 산부인과 진료의 특성상, 여성들의 섬세한 감성과 임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보듬어야 한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글 윤진아 사진 이승현

11명의 전문의, 50여 병상 갖춘 프리미엄 여성병원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예비 엄마라면 누구나 내 아이만큼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최고로 행복한 아이가 되길 바랄 것이다. 임신 후 자신과 태아의 건강과 생명까지 믿고 맡겨야 하는 산부인과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장비나 시설, 의료진, 서비스는 물론 응급상황에서 빠른 대처는 가능한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호산여성병원이 ‘간간한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높고 있는 이유다. 1985년 입원실 10개를 갖춘 ‘방장훈 산부인과’로 개원한 호산여성병원은 1999년 지하 2층, 지상 9층의 병원과 여성웰빙센터를

증축하며 강남 대표 여성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산부인과 방장훈 병원장, 김태준 원장, 백수진 원장, 김미하 원장, 신용덕 원장, 전은진 원장, 이재민 원장, 마취통증의학과 박철호 과장, 여성외과 방범식 원장, 소아청소년과 방경원, 백승희 원장 등 분야별 전문 의료진이 한층 신뢰를 더한다.

호산여성병원은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정기적인 산전 진찰과 태아 기형검사, 양수검사, 용모막검사, 삼차원 초음파 검사, 칼라도플러검사, 당뇨병 선별검사, 태아 안녕검사 등을 통해 고위험 임신 인자를 찾고, 산모 및 태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 및 부작용을 줄여 정상 출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주치의 책임분만제’는 호산여성병원의 자부심이다.

“갑작스러운 분만상황에서 개인의 임신상황을 잘 모르는 의료진이 담당하는 일반 출산환경은 산모에게 불안감과 때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출산을 함께함으로써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실제로 더 편안한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호산여성병원은 임신 관리와 안전한 출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질환 진료 및 수술, 종합검진과 여성암 검진 등에서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전 여성 클리닉’, ‘임신을 위한 클리닉’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여성암 검진과 3차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를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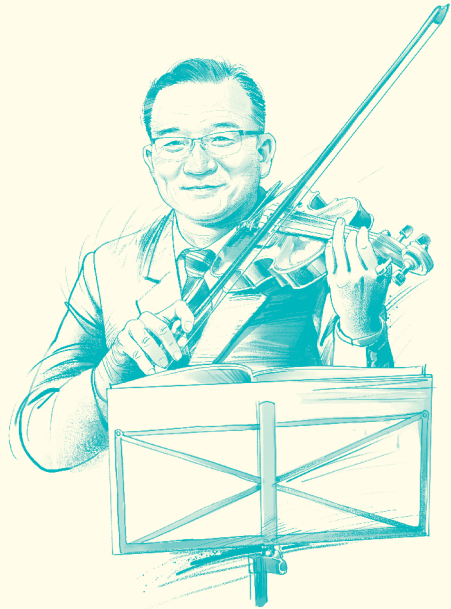
###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 한양대학교병원

방장훈 병원장은 “산부인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로,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라며 “신체적인 위험에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출산 시 신생아가 겪는 정신적 충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를 위해 호산여성병원에서는 각 분야 전문의가 상주해 응급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한양대학교병원과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해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완벽을 기하며 산모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박현경 교수님, 산부인과 김경태 명예교수님 등 한양대학교병원 최고 의료진과의 핫라인이 구축돼 있지요. 개원가에서 보낸 환자의 경과와 예후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치료를 잘해줘 환자도 개원가 의료진도 든든합니다.”



탄생의 순간이라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루어지는 게 아닌 터라, 산부인과는 심야 응급환자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진료과 중 하나다. 최근 결혼적령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 산모가 늘면서 분만환경은 더 어려워졌다. 높은 수준의 집중치료를 요하는 초극소 미숙아, 신생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등등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전원치료에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출산에 있어 첫째로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조산이나 사산, 임신중독, 태반조기박리, 자궁이완 출혈 등의 응급 상황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산모와 보호자 못지않게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환자 최우선’이라는 호산여성병원의 가치를 멈추지 않고 실현해나가겠습니다.”

# 바로크의 틀을 깬 자유롭고 색채감이 뛰어난 오페라 세리아



## Wolfgang Amadeus Mozart Opera <Idomeneo> Kv. 366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이도메네오> 작품번호 366

오페라 <이도메네오>는 모차르트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완성한 오페라 세리아의 전형으로, 모차르트가 본격적인 오페라 작곡가로서 선을 보인 첫 작품이다. 이 오페라의 이탈리아어 대본은 잘츠부르크 궁정 사제이며 시인 겸 음악가인 지암바티스타 바레스코가 만들었다. 모차르트가 이를 작곡하게 된 배경은 바바리아의 선제후 카를 테오도르 공작이 궁정축제를 위해 <이도메네오> 작곡을 위촉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세리아 양식을 따른 것이지만 합창, 행진곡, 발레는 프랑스 양식을 인용하였다. 제1막의 마지막 난파 장면은 글루크 오페라의 난파 장면과 비슷하며 글루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레치타티보를 포함한 아리아, 듀엣 등은 모두 전통 이탈리아 양식인데다 모차르트는 음악적으로 맞지 않는 대본을 삭제하고 발음하기가 어려

운 단어들도 수정해 초연에 참가한 성악가들은 비교적 덜 힘들게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오페라 <이도메네오>는 오케스트라의 색채, 반주를 동반한 레치타티보, 선율 등에서 뛰어난 완벽함을 보여준다. 드라마적인 요소에서도 오페라 세리아의 전통을 견지하여 합창을 이용했고 세트 변화가 보다 자유스러운 것도 특색이다. 원헌에서 3회 공연된 이후 모차르트는 글루크 스타일로 수정하려고 하였고 이도메네오를 테너가 아닌 베이스로, 이다만테도 카스트라토가 아닌 테너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 이 작품은 원헌에서 1781년 초연된 후 빈에서는 그로부터 5년 후인 1786년 초연되었다. 이후 영국 초연은 153년이 지난 1934년 런던이 아닌 글래스고였다. 초연 150주년을 맞은 1931년 빈 슈타츠오퍼는 리하르트 슈트라우

스에게 위탁해 수정본을 만들어 공연한 적이 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오랫동안 잊혔지만 오늘날에는 다시 많은 무대에 오르고 있다. **제1막 1장 왕궁, 일리아의 거실**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온 트로이 프리아모스의 공주인 일리아는 그리스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의 아들 이다만테를 사랑한다. 한편 그리스 아르고스의 공주 엘레트라도 이다만테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다만테가 일리아에게 이도메네오 왕이 살아있다면 감사의 뜻으로 트로이 포로들을 풀어줄 것이라며 일리아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한다. 이다만테는 트로이 포로해방으로 평화를 기대한다. 심복 아라바체가 폭풍우에 이도메네오의 배가 난파되어 목숨이 위태롭다고 보고하자 왕이 죽는다면 이다만테가 일리아를 선택할 것이라며 엘레트라라는 화를 낸다. **제2장 난파된 배가 흩어진 해변** 이도메네오는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 귀국 후 제일 먼저 만나는 자를 바치겠노라고 해신 넵툰에게 맹세한다. 그러나 그는 바로 아들 이다만테였다. 아들이 제물이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이도메네오는 괴로워하며 이다만테를 멀리하자 아들은 그의 행동에 괴로워한다. 한편 크레타 전사들은 무사히 귀환하게 해준 넵툰에게 감사 노래를 부른다. **제2막 제1장 왕궁** 심복 아라바체는 이다만테와 함께 동행하여 이도메네오에게 엘레트라를 아르고스로 추방하고 대신 다른 이를 제물로 대체하라고 충고한다. 한편 일리아는 이도메네오를 아버지로 크레타를 조국으로 여기겠다고 고백하지만 이도메네오는 이다만테가 나라를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 엘레트라는 아르고스로 떠나면서 이다만테를 일리아로부터 이별시킴에 기뻐한다. **제2장 시돈의 항구** 이도메네오는 아들에게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배울 것을 권한다. 이다만테는 일리아를 그리워하고 왕은 아들과 이별하게 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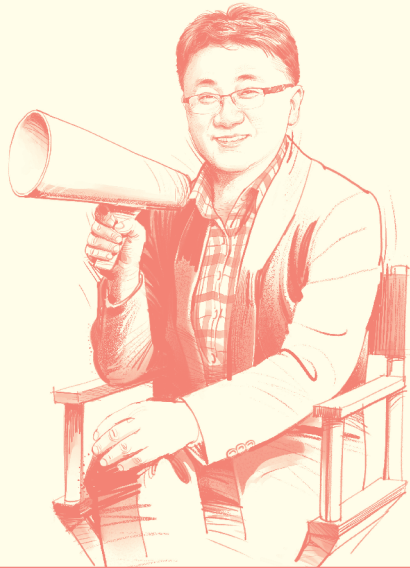
출항 직전 갑자기 폭풍우와 함께 거대한 바다뱀이 나타난다. 이도메네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희생을 원하지만 이다만테의 희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 **제3막 제1장 왕궁의 정원** 이다만테는 바다뱀과 싸우러가기 전 일리아에게 찾아온다.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이도메네오와 엘레트라가 이를 목격하면서 엘레트라는 이다만테가 사랑하는 사람은 일리아임을 눈치챈다. 이어지는 유명한 사중창에서 이다만테는 아버지의 냉랭함에 슬퍼하고, 일리아는 충직함을 맹세하며 이다만테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것을 이도메네오에게 부탁한다. 왕은 자신이 대신 죽을 수 없을까 하며 넵툰의 잔인함을 원망하며 엘레트라는 질투에 빠져 복수를 노린다. 제2장 왕궁 앞 큰 광장 제사장은 바다뱀 때문에 많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었다고 보고하면서 넵툰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누가 제물인지 밝히라고 애원한다. 이도메네오가 사실 제물은 이다만테라고 밝히자 제사장과 백성들은 놀란다. **제3장 해신 넵툰의 사원** 제사장과 이도메네오가 제물을 준비하는 사이 아라바체가 들어와 이다만테가 바다뱀을 죽였다고 알린다. 제물로 희생되기 위해서 이다만테가 끌려들어온다. 이다만테는 아버지를 이해하고는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다만테가 부자시간에 작별을 고하는 순간 갑자기 일리아가 들어와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고 하자 이다만테는 이를 거절하고 제단으로 올라간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죽으려 하자 갑자기 예언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사랑이 결국 이겼다. 이도메네오는 이제 이다만테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라. 일리아는 이다만테와 결혼하라. 화는 이제 풀렸으며, 하늘도 만족하였다.” 백성들의 축복 속에 이도메네오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일리아와 결혼을 허락하면서 막이 내린다. 🎬

들 을 만 한 A l b u m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G, 1992]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 [EMI, 2002]	잉글리시 바로크 솔리스트 [Archiv, 1990]
	지휘 : 존 프리차드 리처드 루이스(이도메네오), 루치아노 파바로티(이다만테), 군돌라 야노비치(엘레트라)	지휘 : 찰스 맥케라스 이안 보스트리치(이도메네오), 로레인 헌트 리버튼(이다만테), 바브라 프리토리(엘레트라)	지휘 : 존 엘리엇 가디너 안소니 롤페 존슨(이도메네오), 안네 소피 폰 오테(이다만테), 힐레비 말틴펠토(엘레트라)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필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 <에이리언 : 커버넌트>가 던진 경고에 대하여




### 견 고 히 쌓 은 <에 이 리 언> 시 리 즈 의 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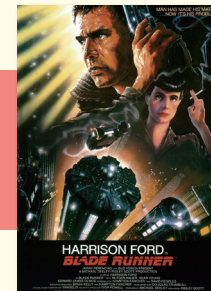
이제 팔십 줄에 접어든 노감독 리들리 스콧의 직전 작품<프로메테우스(2012)>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시퀀(Sequel, 속편)이자, 수많은 아류영화를 탄생시켰던 우주괴물 시리즈 <에이리언(1979)>의 프리퀀(Prequel, 전편)이기도 한 <에이리언 : 커버넌트>가 몹시 궁금했다. 그러고 보니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이 <블레이드 러너(1982)>를 다양한 버전으로 접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그의 필모그래피는 여전히 에픽과 SF 사이를 노닐지만 이번 영화는 관객들의 호기심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했다. 거장의 수십 년 염원이 농축된 작품은 요즘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지 못한 것이다.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관람으로는 줄거리를 따라가기 어렵지만 영화 곳곳에 깔아놓은 장치들은 스스로 생각하여 터득하라는 도발적인 동기부여로 읽힐 만하다. 그래서 내 나름의 방식으로 그가 말하려는 바를 풀어보려고 한다. 근 40년간 감독이 천착했던 주제는 외계생명체(에이리언)의 근원이었다. 영화사 20세기폭스는 1977년 <스타워즈>의 엄청난 성공을 이어갈 또 하나의 SF영화를 찾고 있었다. 시나리오 작가 댄 오배넌과 로널드 슈셋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영국에서 건너온 젊은 연출가 리들

리 스콧의 패기와 만나 전위적 예술가 H.R. 기거의 화보 속 제노모프(Xenomorph)라는 전대미문의 우주괴물을 화면 속에 그대로 재현하였다. 직립보행을 하고 연질의 보호막이 머리 부분을 감싸고 있으며 두 개씩 붙어있는 총 5개의 손가락을 가진, 산성 침을 흘리는 괴물 말이다. 안드로이드의 가슴을 뚫고 나온 괴물(체스트 버스터)은 이후 제임스 카메론, 데이빗 핀처,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의 <에이리언> 시리즈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형되어간다. <에이리언 : 커버넌트>에서는 감독이 의도했던 대로 제노모프의 탄생 비화가 드러난다. 전편 프로메테우스에서 목만 살아남은 안드로이드 데이빗은 홀로 살아남은 엘리자베스 박사의 몸을 이용하여 괴물을 창조해낸다. 영화가 시작될 무렵 데이빗을 만든 웨일랜드 박사에게 “나를 만든 사람이 아버지(웨일랜드)라면 당신은 누가 창조하였나요?”라고 묻고, 피아노 연주를 청하는 아버지에게 들려준 음악은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 중에서 ‘신들의 발할라 입성’이었다. 이 곡이 수록된 ‘라인의 황금’ 마지막 부분에서 죽은 영웅들이 들어가는 곳은 스칸디나비아 신화 속의 발할라 궁전이며, 여기서 입궁이란 기존의 창조주인 신들의 종말을 의미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새로운 우주 서식지로 향하는 수면 캡슐 속 인간들과 인간 배아를 지니고 유영하는 커버넌트 우주선에서 홀로 깨어있는 데이빗이 냉동 배아 보관소에 제노모프 배아 2개를 넣으면서 중앙컴퓨터의 선곡 요청에 화답하는 음악 역시 바그너의 그것이었다. 전편인 프로메테우스가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우주인들의 숨결에 의해 우연히 창조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암시였다면, 이번 영화는 피조물인 안드로이드(A.I)가 인간을 초월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능동적으로 이종 교배, 진화시켜 궁극의 괴물을 창조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종의 기원이다. 영화 중반 데이빗은 불의의 사고로 최초 목적지가 아닌 중간 기착지에 도착한 인간 승무원들이 기체 형태로 체내에 침투한 괴생명체에 의해 죽어나갈 즈음 두건(대개 구세주를 의미)을 쓰고 등장하여 남은 인간을 구원한 후 자신의 아지트로 인도한다. 외형이 똑 같은 두 명의 안드로이드는 비로소 이렇게 대면하게 된다. 창의적이지는 않으나 논리적으로는 빈틈없는 2세대 월터와 마주친 1세대 구형 안드로이드 데이빗은 창조에 대해 언급한다. 스스로 작곡한 곡을 피리로 연주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지 묻고, 키스하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 묻고, 사고로 남편이자 우주선 함장을 잃은 대니얼스를 보호하려는 월터에게 실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결국 안드로이드인 데이빗은 그의 창조주였지만 실망스러웠던 존재인 인간을 파괴시키고 괴물을 인간의 목숨과 바꾸면서 새롭게 창조해낸다. 그가 창조한 제노모프는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생식력이 있는 인간에게는 기생하여 생명을 앗아가지만 불임의 존재인 창조주 데이빗에게는 절대 순종한다. 또 하나의 절대권력이 강림하는 순간이다. <블레이드 러너>에서 감독이 영화 내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은 인간과 복제인간 중에서 누가 더 인간다운 존재인가였다. 리플리컨트는 4년의 연한이 되면 기능이 멈춰지는 시한부 생명을 가졌지만 어느 누군가의 감정과 기억을 가진 채로 최후를 맞이한다. 이 때문에 항상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이다. 수명 연장을 위해 사람을 죽

였던 복제인간 로이 베티는 마지막까지 그를 추적하는 릭 데커드를 죽일 수 있었지만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산성비를 맞으며 스스로 죽어가고, 데커드는 그를 사랑하는 복제인간 레이첼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고는 그녀와 함께 도망가는 것을 선택한다. 영화에서 인간과 복제인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보는 행위란 지각적으로 형성되는 뇌의 착각일 뿐이며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에 닿게 된다. 높은 망루의 감시탑을 통해 자신은 노출시키지 않은 채 모두를 감시할 수 있다는 판옵티콘(Panopticon)이란 개념은 시각이란 행위가 얼마나 교조적이고 전체주의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미셸 푸코는 그의 책 <감시와 처벌>에서 “판옵티콘을 통해 권력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것이며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근대 이후는 새로운 방식으로 권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바로 권력이란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지도자는 모두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Me First’ 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이 바로 우경화에 불을 붙이는 ‘제2의 창조주’를 표방하는 인물들이다. 이 와중에도 한국사회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자를 몰아내고 민주적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을 앉혔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 위의 사람만 바뀌었을 뿐 한국사회를 아프게 하는 온갖 병리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파시즘이 우리를 좀먹지 않도록 사실을 직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올라가게 되면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걱정해야 하고 과거를 부정하면서 괴물을 창조하여 모두가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잠식당해 메타 권력에 물들지 않도록, 감독은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바그너의 음악과 셸리의 시를 차용한 듯하다.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중의 왕. 강대한 자들아, 나의 업적을 보아라. 그리고 절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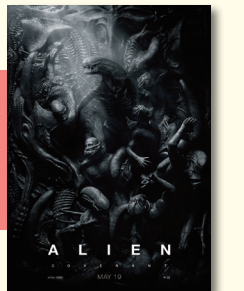
볼 만 한  
Movie



블레이드 러너(1982)



프로메테우스(2012)



에이리언 커버넌트(2017)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지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 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명작을 남긴 화가의  
질환이 작품과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폴 세잔,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화풍을 열다

글. 유성훈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폴 세잔은 후기 인상파 중 가장 뛰어난 인물로 꼽히며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의 작품은 20세기의 많은 미술가들과 미술운동들, 특히 입체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잔은 인상주의에서 시작해 개성적 표현과 그림 자체의 완결성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19세기의 틀에 박힌 모든 가치들을 부정했다. 강렬하면서도 차분한 세잔의 색채는 그의 생애와도 닮아있었다.

세잔이 하는 사람들, 1892-1895



### 근대 회화의 아버지, 폴 세잔

폴 세잔은 1839년 1월 19일, 남프랑스에 있는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인 루이스 아우구스테 세잔의 바람에 따라 법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1861년 세잔은 미술에 몰두하기 위해 아버지가 원하는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파리로 떠났고, 파리에서 인상파 화가 카미유 피사로를 만나 함께 풍경화를 그리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세잔의 초기 작품에 풍경화가 많은 이유다.

세잔은 모든 사물이 원기둥, 구, 그리고 원뿔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관찰한 각각의 사물을 한 화면에 그려 넣었다. 형태를 색채의 덩어리로 표현해서 반추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세잔은 고희, 고갱과 더불어 ‘후기 인상주의 3인’으로 불리는데 그들은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연의 순수한 빛과 색채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전통적인 회화의 명암, 원근, 구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세잔은 인상파가 중요시 하는 아름다운 색채와 빛을 받아들이면서도 형태와 공간을 살려내는 화풍을 이어갔다. 이런 면이 세잔을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부르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파블로 피카소는 세잔을 스승으로 삼아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세잔의 새로운 시도들은 훗날 표현주의의 야수파 및 입체파 등 현대 회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세잔은 1891년 시력이 나빠진 것을 느낀 후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당뇨 합병증으로 꽤 오랜 시간을 고생해야 했다. 그러던 중 1906년 어느 날, 폭우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투병 중에도 붓을 놓지 않았을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을 불태웠던 세잔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

100여 년 전 세잔을 고생하게 했던 당뇨병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회 경제적인 발전으로 과식을 하거나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당뇨병 인구가

세잔, 물 주전자, 과일이 있는 정물, 1894



세잔, 부엌의 풍경, 1876



그림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가 늘어났다. 2016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480만 명 정도가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의 30%는 아직 자신이 당뇨병 환자임을 모르고 지낸다. 당뇨병은 혈당이 정상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병이다. 일반적으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소변으로 배출되는 병을 말한다. 즉, 인슐린 결핍이나 인슐린의 작용이 장애를 받는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로 발생한다.

혈당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다. 당뇨병이 있더라도 혈당이 너무 높거나 혹은 혈당이 너무 심하게 낮은 상태(저혈당)가 아니면 일상생활에 당장의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혈당 조절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기가 쉽다.

하지만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눈, 콩팥, 발, 심장 등에 당뇨병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기고 나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서 당뇨병에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합병증의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합병증은 당뇨병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이므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병증의 중요한 위험 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증, 흡연 등에 대한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혈당조절과 더불어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며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만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앞으로  
도착한 감사의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두 분의 인술에 감사합니다

신장내과 한상웅, 외과 권준교 교수님께

만성신부전으로 평생에 걸쳐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 앞에 섰던 최완호 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첫 혈액형 불일치 신장수술 성공 사례로 새 삶을 선물 받게 되었다. 이는 환자의 불안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따뜻한 인술로 성공리에 수술을 집도해 낸 신장내과 한상웅 교수와 외과 권준교 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정리. 박채림 사진. 이승현



한상웅, 권준교 교수님께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심한 통증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퇴원입니다. 운수업에 종사하며 가족들의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왔던 한평생. 만성신부전이란 이름도 낯선 병명 앞에서 막막했던 지난날이 떠오릅니다. 생경한 병명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저는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 앞에서 생계마저 놓아야 했지요. 사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기록지에 따라 붙는 수많은 의료 용어보다는 오늘의 통증에 더 민감합니다. 오늘은 왜 아픈지, 내일은 좀 나아질지. 끊임없는 궁금증이 줄을 잇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두 교수님은 회진 시간이 아무리 길어질지언정 환자 한명 한명, 저희가 이해할 때까지 예후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흔쾌히 신장이식을 선택한 것도 두 교수님 덕분입니다. 다행히 제 아내가 혈액형은 맞지 않지만 신장이식 조건에 부합한다고 했을 때, 두 교수님이라면 인생에 가장 큰 수술을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보답으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여를 위해 아내까지 입원해 수술 준비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찌나 하는 불안감도 잠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저희를 보살펴 주신 의료진들 덕분에 수술하는 날엔 오히려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하는 동안 출장 중에도 전화로 제 안부를 확인하셨다는 한상웅 교수님, 늘 웃는 얼굴로 안심시켜주셨던 권준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료진들이 보여주셨던 따뜻한 의술을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최완호 드림



"늘 웃는 얼굴로  
환자들의 질문에  
세세하게 대답해주  
의료진 분들 덕분에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최완호 님께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시는 모습을 뵈 수 있어 의사로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최완호 님 부부는 저희에게도 참 특별한 환자분입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첫 번째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만성신부전이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돼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고령이시기에 예후가 좋지 않아 신장투석보다는 신장이식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는 혈액형이나 조직이 적절히 일치해야만 수술할 수 있었지만 이식 분야의 발달로 혈액형 불일치 환자에게도 신장이식수술이 시행됐지요.

적당한 공여자를 모색하던 중 최완호 님과 부인께서 혈액형은 일치하지 않지만 신장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신장이식 수술은 많은 이들의 협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장내과 외에도 마취과, 비뇨기과, 진단검사의학과와 수술 코디네이터, 간호팀까지 수많은 이들이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입원해계신 동안 저희의 지침을 잘 따라준 최완호 님 부부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길고 힘든 투병생활 중에도 의료진에게 보내주시는 한결 같은 지지와 믿음이 있어, 막중한 책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리를 비롯한 인근 지역 만성신부전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완호 님의 완쾌를 위해 같은 자리에서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웅, 권준교 드림

"저희 의료진에게  
보여주신 한결 같은  
지지와 믿음에 감사  
드립니다. 최완호 님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이  
알기 쉬운 건강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갱년기와 고혈압의 상관관계

신진호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 내가 고혈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51세 여성이 혈압이 높아 외래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 나이에 혈압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어쩌면 불현듯 찾아온 고혈압에 당황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실제 국내 여성들의 고혈압 유병률 통계를 보면 40

대에 10% 정도 되던 고혈압이 60대가 되면 60% 가까이 상승하여 남성과 똑같아 진다. 다시 말해서 4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동안 남성은 고혈압의 유병률이 2배 상

승하는데 그치지만 여성은 6배나 뛰어 오르기 때문에 갱년기 동안에 고혈압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여성들은 40대 이전에는 혈압이 낮아 평소 100mmHg 근처에서 유지되다가 컨디션이 나쁠 때는 100mmHg 이하로 내려가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몸져눕는 일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갱년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여성호르몬 결핍 증상으로 나타나는 얼굴 화끈거림, 두근거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 Point.1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은 6배 상승한다.**

### 갱년기 여성의 혈압의 대처 방법

최근 미국의학회 잡지에 50대 고혈압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고혈압 치료를 50대부터 착실하게 받은 사람이 60대에 들어서면서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 치매에 덜 걸린다는 것이다. 즉 고혈압 치료를 미루는 것은 치매라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나이의 여성은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고혈압 때문에 병원을 찾기 때문에 병원 자체가 낯설고 또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불안한 마음이 갱년기 증상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더해지게 된다. 때문에 이때 혈압을 측정하면 실제 환자의 혈압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될 우려가 있다.

#### Point.2

**고혈압 진단을 확정 받은 후에는  
치료를 늦춰서는 안 된다.**

- 본 원고는 한양대학교병원이 지난 4월 3일, 4월 23일 진행한 건강강좌의 내용입니다.
-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7+8월 건강강좌 소식은 46쪽 한양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ANYANG NEWS

2017년 5월 ~ 2017년 6월

### 한양대학교의료원

#### 50주년 기념사업단 발족식 개최



본원은 지난 5월 22일 동관8층 제1회의실에서 오는 2018년 의과대학 50주년을 맞아해 '의과대학 50주년 기념사업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업단은 총 4개 분야 10여 개 세부목표를 선정해 기념식, 50주년사 발간, 기념 홈페이지, 학술 행사, 만찬, 타임캡슐 및 기념품, 50주년 홍보, 기념 wall 등의 50주년 기념 사업을 알차게 구성할 예정이다.

### 한양대학교병원

#### 의료 질 평가에서 모두 1등급 선정

- 유방암 적정성 평가 4회 연속
- 대장암 적정성 평가 5회 연속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6회 연속
- 폐렴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방암, 대장암 등 중증 질병과 폐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모든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질병의 진단, 수술, 치료 등에서 의료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본원은 유방암 적정성 평가 4회, 대장암 적정성 평가 5회,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6회, 폐렴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1등급을 받는 등 의료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 제45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본원은 개원 45주년을 맞아 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정밀 치료 제공을 다짐하고, 지난 5월 2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45주년 개원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원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21명에게 '모범직원상'이 수여됐다. 간호국 김혜란 계장 외 2명이 '이사장상', 의료정보팀 이준욱 계장이 '총장상', 간호국 신경실 계장 외 1명이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상', 간호국 김미선 계장 외 14명이 '병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해 동안 언론홍보 활동을 많이 한 교수들에게 수여하는 '한양교수언론상'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현 교수, 외과 하태경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가 수상했다. 외과 우준석 전공의 외 3명은 '친절직원상', 간호국 이정희 계장 외 2명은 '환자모시기왕',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우수부서상', 구간건축 정현화 대표 외 1명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 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지난 4월 27일 본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지난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선정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현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안동현 행동발달증진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로는 정진업 보건복지부 장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원은 발달장애인의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해 2015년부터 발달의학센터를 개소해 운영해 왔고, 본교 발달의학교책연구센터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융합적 의료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2016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행동발달의학센터는 독립된 진료공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료진, 발달전담 코디네이터, 행동치료사, 특수 교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적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원 45주년 기념 ‘한마음 걷기대회’



본원은 지난 5월 13일 한양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원 45주년 기념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전 교직원들이 화합하여 신뢰, 믿음, 존경, 존중을 향상시키고, 행복이 충만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이날 ‘한마음 걷기대회’는 한양여자대학교 운동장을 출발해서 응봉산을 경유해 다시 출발 장소로 집결하는 총 6km 코스였다. 걷기대회가 끝난 후에는 교직원 상호 간에 화합과 교류를 위한 다과회가 열렸으며, 푸짐한 경품행사도 진행됐다.

2017년 약물유해반응 심포지엄 개최



본원 지역약품안전센터는 지난 6월 14일 본관 3층 대강당에서 예방 가능한 약물 유해반응을 주제로 ‘2017년 약물 유해반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예방 가능한 약물 유해반응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약물 유해반응의 능동적 탐색’, ‘약물 유해반응의 자발적 보고와 관리’, ‘예방 가능한 약물 유해반응’,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예방 가능한 약물 유해반응: 인슐린과 혈당강화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본원 지역약품안전센터는 2011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약물감시체계 구축 및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감정노동 캠페인 진행



본원은 지난 5월 31일 본관 1층 로비에서 교직원과 고객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따뜻한 근무환경과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감정

노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감사온도 1도를 높이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병원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교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의료진의 사기 진작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방암 · 대장암 · 폐렴 적정성 평가 모두 1등급 획득

- 유방암 적정성 평가 3회 연속
- 대장암 적정성 평가 5회 연속
- 폐렴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1등급



본원은 유방암 적정성 평가 3회, 대장암 적정성 평가 5회, 폐렴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에서 발표한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등 암 수술과 치료뿐만 아니라 급성기 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혈액투석 등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아 중증질병 치료에 있어 최우수 기관임을 인정받고 있다.

구리남양주민들레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본원은 지난 4월 27일 본원 12층 강당에서 구리남양주민들레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기청소년 발견 시 상호 연계, 청소년 선도 지원,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 제공, 위기청소년 선도 및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 등이다.

구리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본원은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원영웅 교수가



‘영리한 암환자 되기’, 6월 2일에는 심장내과 신경훈 교수가 ‘협심증, 심근경색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



본원은 본교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6월 8일 동관 앞 주차장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모인 헌혈증은 입원 중인 어려운 환자에게 사용된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HUHRD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지난 5월 18일 본교 HIT 6층에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이하 루푸스)의 발전하는 임상&중개 연구’를 주제로 ‘HUHRD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본교 이영무 총장, 최호순 의과대학 학장, 배상철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와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 30여 명과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상철 병원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루푸스 분야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들을 대거 초청했다”면서 “루푸스 관련 글로벌 코호트들을 네트워킹을 통해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존 임상연구들의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들에 대한 논의와 평가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제1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본원은 지난 5월 26일 본원 1층 로비에서 ‘제19주년 개원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배상철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본원은 사랑을 실천하는 열린 병원과 연구중심병원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류마티즘 전문병원을 목표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연구자들과의 연구와 교류를 통해 류마티즘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한국인에 적합한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물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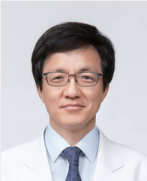
**유대현 교수,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선출**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유대현 교수가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5월 21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이다. 회장 선출은 지난 5월 1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류마티스학회 제37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1차 국제심포지엄’의 제29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김재민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재민 병원장이 지난 2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30차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병원장은 메르스 사태의 신속한 대처와 추후 감염병 안심응급의료센터 개소, 출산장려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분만실 활성화와 산부인과 확충,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증축 등 국민보건으로 향상을 위한 헌신과 지역사회 보건의료환경 발전의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석현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석현 교수가 지난 4월 7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경찰관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경찰관 긴급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고, 경찰청 ‘마음동행센터’의 운영을 표준화하고 센터 소속 전담 임상심리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트라우마 치료 전문교육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환 교수, 대한청각학회 회장 취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이승환 교수가 지난 5월 13일 서울 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청각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제 27대 대한청각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설립되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학회로, 국내에 청각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도입하고 발전시킨 학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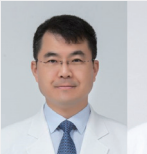


**최동호 교수,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최동호 교수가 지난 4월 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제46차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에서의 성공적인 췌장절제술’이라는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전형준 교수, 대한신경손상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형준 교수가 지난 5월 27일 계명대에서 열린 ‘제24차 대한신경손상학회’에서 ‘제1,2 경추간 유합술을 위한 극돌기간에 메쉬 심지를 이용한 고정술의 효과’라는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석현 교수와 김대호 교수, 국제 EMDR 협회 공인 트레이너 자격 획득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석현 교수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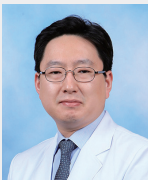
과 김대호 교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최근 국제 EMDR협회로부터 공인 트레이너(EMDR Institute Accredited EMDR Trainer) 자격을 획득했다.



**이영호 교수, 중국제대혈이식학회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영호 교수는 지난 6월 17일 중국 허페이에서 열린 ‘제5회 중국제대혈이식학회’에 초청받아 ‘제대혈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중국제대혈이식학회’에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저명한 석학들이 대거 참석하는 중국 내 제대혈 이식 관련 최대의 국제학술 행사이다.



**신영전 교수팀, 건강정책학회 ‘최우수 논문상’ 등 다수 수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가 주관하는 5개 연구팀이 지난 5월 1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의 2017년 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 우수 포스터상, 장려상 등을 수상하여 모든 연구팀이 수 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윤영은 임상강사, 미국이식학회 우수 초록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윤영은 임상강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7년 미국이식학회’에서 ‘Usefulness of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Scanning for Replacement of DTPA’라는 논문으로 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



**유교상 교수, 인도 의료진 연수 실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유교상 교수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AYEА(Asian Young Endoscopist Award)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의 젊은 의료진에게 연수를 실시했다. AYEА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젊은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위장관 및 췌담관 내시경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트레이닝 센터로 지정돼 참여하게 됐다.

##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7년 4월 ~ 2017년 5월



KBS2TV VJ특공대  
박현경 교수

신생아 중환자실 24시



MBC 기분좋은 날  
이창범 교수

대사 증후군



이원무 교수



박현경 교수



김희진 교수



김희진 교수



노성원 교수



노성원 교수



노성원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김정은 피부과 교수** KBS 1R [라디오 주치의]/ 4월 3일/ 대상포진 **이원무 산부인과 교수** TV조선 [특집 다큐]/ 4월 10일/ 갱년기가 만드는 두 번째 봄, KBS2TV [VJ 특공대]/ 5월 5일/ 신생아 중환자실 24시 **김희진 신경과 교수** MBC [PD수첩]/ 4월 11일/ 간병 전쟁, SBS [모닝 와이드]/ 5월 22일/ 치매 100만 시대, 대비는? **노영석 피부과 교수** SBS [모닝 와이드]/ 4월 13일/ 3년째 낫지 않는 피부질환! 원인은?, SBS [모닝 와이드] 5월 23일/ 아토피 탈출 프로젝트, 닥터 어벤저스, KBS1R [라디오 주치의]/ 5월 24일/ 무중 **황환식 가정의학과 교수** MBC [경제매거진 M]/ 4월 15일/ 건강의 경제학 - 중년 뱃살 **안성준 안과 교수** KBS2TV [생생 정보]/ 4월 26일/ 당신의 눈이 위험하다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KBS1TV [소비자 리포트]/ 4월 28일/ 조영제의 두 얼굴, KBS1R [생생 라디오 매거진]/ 4월 30일/ 봄철 알레르기 관리법 **하태경 외과 교수** KBS2TV [VJ 특공대]/ 5월 5일/ 신생아 중환자실 24시 **이현주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2TV [VJ 특공대]/ 5월 5일/ 신생아 중환자실 24시 **박현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2TV [VJ 특공대]/ 5월 5일/ 신생아 중환자실 24시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MBC [생방송 오늘 아침]/ 5월 15일/ 사망 판정 후 살아난 남자, 그는 어떻게 깨어났나?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모닝 와이드]/ 5월 23일/ 카페인 음료 3잔 마시고 사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4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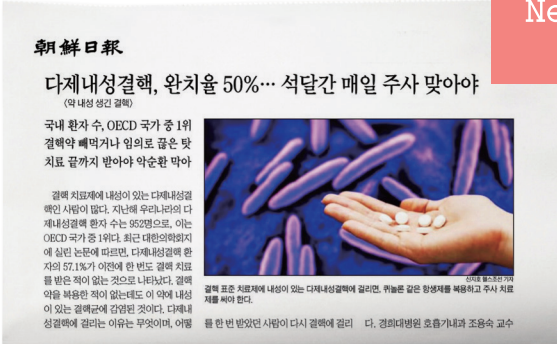
7~8일, 14~15일, 21~22일, 28~29일, 5월 5~7일, 12~14일, 19~21일, 26~28일/ 뮤직 테라피, KBS1TV [뉴스]/ 4월 26일/ 봄철 알레르기 주범 참나무 꽃가루, 이번 주가 절정 **김상현 응급의학과 교수** YTN [사이언스 투데이]/ 4월 3일/ 봄철 야외활동 주의사항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교수** SBS [뉴스]/ 4월 20일/ 스마트폰 중독된 3살배기? 무심코 건넸다가 뇌 성장 위험 **김규식 비뇨기와 교수** EBS [나눔0700]/ 4월 22일/ 아빠의 희망,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조희윤 · 신용운 안과 교수** 연구팀 YTN [뉴스]/ 4월 23일/ 중증 치주질환 환자, 황반변성 위험 1.6배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뉴스]/ 4월 23일/ 조현병학회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선 안 돼” **박찬혁 소화기내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5월 2일/ 위염 · 위궤양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월 8일/ 한식, MBC [기분 좋은 날]/ 5월 16일/ 대사증후군 **김정수 피부과 교수**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5월 18일/ 어둠 속에 갇힌 딸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5월 18일/ 어둠 속에 갇힌 딸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YTN [황금 나침반]/ 5월 27일/ 3D 영상 기술의 세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SBS [모닝 와이드]/ 4월 3일/ 입 속 세균으로부터 잇몸 건강 지키는 방법! **한양대학교의료원 김미경 예방의학교실 교수** SBS · MBC [뉴스]/ 5월 26일/ “폐경기 여성, 하루 채소 · 과일 500g이상 섭취 필수”

2017년 5월 23일(화)



간상선암·두경부암 로봇수술로 환자 만족도 높여요

2017년 4월 5일(수) 건강 D07면



다제내성결핵, 완치율 50%... 석달간 매일 주사 맞아야

2017년 5월 30일(화) 건강 26면



한국의료비... 줄기세포로... 루게릭병 치료 새 길을 열다

2017년 5월 30일(화) 오피니언 29면



서울신문... 눈은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한양대학교병원 임한웅 안과 교수** 서울신문/ 4월 4일/ 4차 산업혁명과 의공학, 서울신문/ 5월 30일/ 눈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박동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4월 5일/ 다제내성결핵, 완치율 50%, 석 달간 매일 주사 맞아야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글로벌이코노믹/ 4월 6일/ 미세먼지 '비상' 뭘 먹어야 할까? 면역력 보약식품 살펴보니 **김희태 신경과 교수** 한국일보/ 4월 11일/ 수면 중 심한 잠꼬대 · 발길질한다면, 혹시 파킨슨병? **김현영 신경과 교수** 서울신문/ 4월 11일/ 술로 버틴 '두통',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간암센터** 국민일보/ 4월 18일/ [명의&인의를 찾아서] 환자 맞춤형 치료, 신 의료 기술 연구·개발 선도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조선일보/ 4월 19일/ 스테로이드제 長服하면 뼈에 구멍 '송송', 비타민 D·칼슘 챙겨야, 조선일보/ 5월 17일/ 양발·눈 부으면 신부전, 한쪽 다리 부으면 혈전 의심 **호정규 산부인과 교수** 건강다이제스트/ 4월 23일/ 걸쭉하면 질염일 때 똑똑한 대처법 **송창면 이비인후과 교수** 헬스조선/ 4월 26일/ 혈액순환 장애 늘면서 '돌발성 난청' 증가 **한지영 치과 교수** 글로벌이코노믹/ 4월 28일/ 당신이 몰랐던 구강청결제, 잇몸병 예방에 도움된다? **노영석 피부과 교수** 한겨레/ 4월 27일/ 머리 감을 때 '절렁', 여자라 안심했나요?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5월 13일/ 숨졌던 80대 노인의 부활은 기적? “흔치 않지만 가능한 일”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헤럴드경제/ 5월 17일/ 환자끼선 고혈압입니다, 30세 이상 10명 중 3명, 서울신문, 5월

17일/ 고혈압 환자 752만 명, 2년 새 6% 경증, 한국일보/ 5월 23일/ 아침 · 저녁 가정혈압 측정, '침묵의 살인자' 막는다 **조석현 이비인후과 교수** 조선일보/ 5월 17일/ 일주일에 4일 이상 코골면, 고혈압 위험 50% 증가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 헬스조선/ 5월 19일/ 보톡스는 안전한 시술? 발음 이상·안면마비 등 부작용도 **태경 이비인후과 교수** 한국일보/ 5월 23일/ 갑상선암 무시하고, 두경부암 잘 몰라 **김승현 신경과 교수** 한국일보/ 5월 30일/ 난치성 질환 세포 치료, 우리가 곧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헬스조선/ 4월 4일/ 봄이 무서워요~ 만성 알레르기비염 다스리기, 동아일보/ 4월 21일/ 이 봄, 꽃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들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합뉴스/ 4월 23일/ 조현병학회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선 안 돼”, 헤럴드경제/ 5월 31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환자 인권 보호” vs “되원 대란” **조희윤 · 신용운 안과 교수** 연구팀 연합뉴스/ 4월 23일/ 중증 치주질환 환자, 황반변성 위험 1.6배 **최호진 신경과 교수** 이코노미리뷰/ 4월 30일/ 치매 진단엔 ‘경도인지 장애’ 치료법 있다? 글썄 **한동수 소화기내과 교수** 헬스조선/ 5월 10일/ ‘변비형’ 과민성장증후군엔 부작용 적은 삼투성 하제 복용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김태환 류마티스내과 교수** 동아일보/ 4월 21일/ “더 열심히 살 수 있으니 괜찮아요”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에게 **한양대학교의료원 김미경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국일보/ 5월 31일/ 과일 · 채소 많이 먹으면 폐경 이후 대사증후군 40% ↓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 Together & Tomorrow

##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  
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http://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hmcfund@hyumc.com](mailto: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 명예로운 자리에 귀하의 소중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7년 4월 ~ 2017년 5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1천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김도윤	정형외과	류기영	신부인과	성정순	응급의학과	이승환	이비인후과	정진혁	이비인후과
		김동섭	KD밝은안과	류제일	신경외과	손주현	소화기내과	이양섭	원무팀	정진환	신경외과
	김태진	문산서울정형외과	김문성	김문성이비인후과의원	명동안과의원	손한숙	약제팀	이영석	정형외과	정희숙	QI팀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김미혜	본관11층	문지용	호흡기내과	송종훈	정형외과	이유경	영상의학과	조기섭	진단검사의학과
		김민규	외과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신대현	상쾌한이비인후과	이은희	본관11층	조상윤	마취통증의학과
		김법석	아침이비인후과소아과	문홍상	비뇨기과	신동한	원무팀	이장현	성형외과	조아라	영양팀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김봉유	원무팀	민경환	병리과	신순교	응급의료센터	이정일	정형외과	조영아	소통의원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승현	신경과	박기철	정형외과	신용운	안과	이제인	약제팀	조영완	운영지원국
태암내과의원		김강욱	신생아중환자실	박동우	영상의학과	신우중	마취통증의학과	이종	교육연구팀	조영진	본관7층
홍동균	본이비인후과의원	김영보	홍보팀	박성욱	물류팀	신정훈	심장내과	이종숙	감염관리팀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김영호	정형외과	박시복	재활의학과	신창식	신창식 이비인후과	이종희	본관5층	지용배	이비인후과
		김옥중	물류팀	박예수	정형외과	신태양	정형외과	이주학	신장내과	채영림	재무팀
		김용수	영상의학과	박용미	본관6층	심경아	본관11층	이주한	영상의학과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김경현	한양대학교의료원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심재항	통증의학과	이진규	정형외과	최도전	본관8층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학과의원	박원희	치과	안치원	응급의학과	이창범	내분비내과	최미경	간호국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우길	시설팀	박일규	진단검사의학과	여광호	진단검사의학과	이창우	정형외과	최민영	외과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운용	기획팀	박주원	의무기록팀	염준훈	마취통증의학과	이창훈	정형외과	최승석	성형외과
윤영선	한양대학교병원	김윤영	치과	박지호	간호국	오미경	마취통증의학과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최완식	새로운정형외과의원
조희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이석	정형외과	박찬혁	소화기내과	오영하	병리과	이화준	QI팀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5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김자혜	소아청소년과	박창구	시설팀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최준석	탐이비인후과의원
		김정수	피부과	박태선	호흡기내과	오정환	희명병원	임완예	원목실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김주형	본이비인후과의원	박혜경	코코이비인후과	원영웅	혈액종양내과	장성호	재활의학과	최충혁	정형외과
강대진	우리들신부인과의원	김준현	갑구정안과의원	박환철	심장내과	유교상	소화기내과	장재선	간호국	최혁중	응급의학과
강민호	안과	김지영	핵의학과	박환경	외과	유미경	임상연구지원팀	장지희	건강관리팀	최호진	신경과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김지은	감염내과	박희정	진단검사의학과	유창성	진단검사의학과	장태원	직업환경의학과	최홍용	비뇨기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반은주	제3중환자실	윤명희	재활의학과	전미선	간호국	하루미	간호국
강창남	정형외과	김창선	응급의학과	방소영	류마티스내과	윤여필	물류팀	전석분	본관7층	한동수	소화기내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충현	신경외과	백근만	운영지원국	윤원구	윤정형외과	전선희	회복실	한명훈	신경외과
고란주	동관7층	김태완	흉악인안과	백운철	병리과	은창수	소화기내과	전용철	소화기내과	한상웅	신장내과
고병우	갑구정안과의원	김태형	호흡기내과	변순현	의무기록팀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전우재	마취통증의학과	한승훈	재활의학과
고성호	신경과	김한준	외과	서승표	정형외과	이경식	감염관리팀	정경희	본관9층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곽인영	곽이비인후과의원	김현욱	의료정보팀	서우영	정형외과	이경희	본관10층	정규성	정형외과	홍성숙	내시경실
구선완	안사총무팀	김희숙	약제팀	서정심		이광현	정형외과	정미선	원무팀	홍의호	핵의학과
국은영	간호국	남승혁	홍부외과	서정원	영상의학과	이규용	신경과	정수경	간호국	황규태	정형외과
김경중	한양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영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설인준	소아청소년과	이두연	정형외과	정우성	새움병원	황성우	경영지원실
김경화	본관11층	남정현	정신건강의학과	신정철	성남이안과	이상훈	이상훈이비인후과의원	정재윤	소화기내과	황의순	진료협력팀
김금옥	중앙금급실	노선균	홍부외과	성민철	안과	이성필	정형외과	정재호	이비인후과	황인자	간호국
김남기	재무팀	노정환	병리과	성외순	부속실	이승욱	비뇨기과	정재홍	정형외과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10만 원 미만		김령희	재무팀	김영선	본관5층	김혜림	감염관리팀	박순구	안과	성경희	동관7층
강다운	본관9층	김명환	영양팀	김영신	치과	김혜원	간호국	박연희	수술실	성명순	사회복지팀
강문주	본관11층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영연	심장센터	김황룡	진료부	박예진	본관8층	성혜윤	본관8층
강민아	진단검사의학과	김미라	성형외과	김영일	임상연구지원팀	김효준	물류팀	박용범	기획팀	손영성	본관9층
강석범	핵의학과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김휘원	본관5층	박유정	감염관리팀	손화선	대외홍보팀
강성훈	진단검사의학과	김미성	간호국	김영진	신경외과	김하나	주사실	박은수	본관10층	송명선	본관10층
강산창	핵의학과	김미성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영훈	물류팀	나소정	수술실	박은영	내시경실	송은경	진단검사의학과
강영의	본관6층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육원	영상의학과	나윤숙	2층내과	박은영	인공신장실	송주영	본관7층
강윤성	의무기록팀	김미화	고객지원팀	김은미	신생아중환자실	나인철	재활의학과	박은형	고객지원팀	송현수	시설팀(시설)
강은미	본관10층	김미희	본관7층	김은실	소아청소년과	남기준	원무팀	박용범	비상계획계	신명희	치과
강지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민선	영양팀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남순영	본관5층	박점현	본관11층	신미숙	진단검사의학과
강지원	기획팀	김민아	본관10층	김은지	본관10층	노광규	인사총무팀	박주는	분만실	신수지	수술실
강해영	영상의학과	김민정	수술실	김은희	수술실	노옥경	제3중환자실	박지경	영양팀	신정미	영양팀
강혜숙	영양팀	김민정	수술실	김인호	약제팀	노옥석	동관7층	박지애	QI팀	신정은	인공신장실
고희경	2층내과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노창완	영상의학과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신철우	진단검사의학과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김민희	2층내과	김재희	영상의학과	류종백	시설팀	박진욱	보험심사팀	신현주	인공신장실
공지현	심장센터	김백수	동관7층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모지은	소화기내과	박진희	인공신장실	신혜민	수술실
곽동원	영상의학과	김병숙	원무팀	김정민	본관10층	문미영	주사실	박진희	인사총무팀	신희숙	내과계중환자실
권나희	영양팀	김보미	신경외과	김정숙	고객지원팀	문상희	내과중환자실	박춘아	수술실	심규진	본관7층
권미화	호흡기내과	김상미	본관10층	김정안	본관7층	문영민	영상의학과	박현정	피부과	심규형	영상의학과
권연희	영양팀	김상훈	약제팀	김정언	외과	문재봉	시설팀+B192	박현혜	본관8층	심요라	보험심사팀
권오균	인사총무팀	김상희	본관11층	김정희	영양팀	문정희	본관9층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안대웅	교육연구부
권유진	응급의료센터	김서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문한솔	외과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안명현	병리과
권은진	이비인후과	김선영	2층내과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문희애	본관6층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안미경	영양팀
권혁천	고객지원팀	김선영	고객지원팀	김중식	수술실	민현숙	약제팀	방민주	제3중환자실	안삼순	2층내과
권현숙	본관5층	김선주	인공신장실	김창금	영양팀	박경림	보험심사팀	방성주	대외홍보팀	안석태	영상의학과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성애	본관17층	김철한	재무팀	박경미	비뇨기과	방지훈	신경외과	안선미	내과중환자실
김경수	본관6층	김성철	병리과	김초룡	본관5층	박경숙	간호국	배순석	수술실	안신영	본관9층
김경숙	항암조제실	김성훈	영상의학과	김초룡	본관6층	박경희	중앙공급실	배은희	보험심사팀	안유정	내과중환자실
김경실	본관5층	김세정	본관11층	김춘애	영양팀	박근배	보험심사팀	백필선	외과	안은종	의료정보팀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소란	본관10층	김태근	병리과	박영호	환자이송반	백형정	약제팀	안은진	2층내과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소연	인공신장실	김태호	재활의학과	박미라	외과계중환자실	백혜연	수술실	안이슬	본관10층
김규식	비뇨기과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택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박미숙	영양팀	변다솜	본관10층	안정미	수술실
김금례	인공신장실	김숙미	영상의학과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박미순	원무팀	서명진	주사실	안정은	본관11층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순식	노동조합	김현일	외과	박미옥	교육연구팀	서병갑	영상의학과	안정현	이비인후과
김기석	내시경실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현조	킴스의원	박상혁	영양팀	서소연	소아청소년과	안창선	물류팀
김나영	본관18층	김아름	본관5층	김현주	고객지원팀	박선아	진단검사의학과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안혜옥	본관20층
김다솜	약제팀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현진	재활의학과	박선영	내과중환자실	서승희	내과중환자실	양길녀	본관7층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애경	본관20층	김현창	물류팀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서승희	본관9층	양명화	간호국
김도와	내시경실	김양선	인공신장실	김현희	2층내과	박성찬	진단검사의학과	서영남	본관8층	양미영	영양팀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연정	재무팀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박소은	영양팀	서영은	본관5층	양수용	세탁실
김란	본관5층	김연주	병동서무	김형석	약제팀	박수미	신생아중환자실	서현주	진료협력팀	양은주	낮병동
김령	영양팀	김영미	이비인후과	김형주	수술실	박수정	본관9층	설명길	의료정보팀	양정자	원무팀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양현	간호국	윤선미	영양팀	이수연	고객지원팀	임은실	응급의료센터	채우석	채우석이비인후과	한정연	성형외과
양효선	약제팀	윤선애	본관6층	이수진	수술실	임은자	이비인후과	천경희	의료정보팀	한현남	영양팀
엄기숙	영양팀	윤선희	영양팀	이숙	고객지원팀	임인자	수술실	천다혜	본관9층	한현수	의료정보팀
엄혜정	수술실	윤아름	본관10층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임정연	고객지원팀	천영복	물류팀	한현정	보험심사팀
여미진	본관10층	윤은정	신생아중환자실	이순자	본관5층	임주아	정형외과	천은미	소아청소년과	함명자	보험심사팀
여은주	본관6층	윤인숙	본관10층	이승호	영상의학과	임지영	영양팀	천은선	외과	허성미	본관8층
오금복	정형외과	윤정아	외과	이연우	신생아중환자실	임화영	비뇨기과	최다울	신생아실	허정현	심장센터
오기향	비뇨기과	윤정희	약제팀	이연주	정형외과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최문정	본관5층	허지선	본관7층
오미혜	정신건강의학과	윤지선	본관6층	이영미	신생아중환자실	장윤주	약제팀	최미옥	내과중환자실	허지영	병동서무
오연이	영양팀	윤향순	진단검사의학과	이영주	2층내과	장정아	육아지도실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허태영	진단검사의학과
오영숙	고객지원팀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에린	내과중환자실	전경신	신생아실	최선미	인공신장실	허효숙	소화기내과
오유선	본관9층	윤현순	고객지원팀	이윤미	심장센터	전효선	영상의학과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현순희	소화기내과
오재훈	마취통증의학과	윤희정	인공신장실	이윤진	응급의료센터	정경은	본관5층	최성은	교육연구팀	홍대영	인사총무팀
오정님	영양팀	음희재	내시경실	이은경	인사총무팀	정기영	영상의학과	최성환	최성한 이비인후과	홍민영	비뇨기과
오정숙	재활의학과	이강연	비상계획계	이은명	마취후회복관리실	정대천	원무팀	최세연	원무팀	홍숙의	병동서무
오지현	주사실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은애	본관11층	정선주	본관7층	최소담	영상의학과	홍은미	내과중환자실
오진영	2층내과	이경철	기획팀	이은주	보험심사팀	정선희	인공신장실	최순애	인공신장실	홍은자	내시경실
오홍석		이경희	인공신장실	이은형	본관6층	정수정	본관5층	최승희	본관10층	황미향	영상의학과
오화경	수술실	이관석	원무팀	이정식	보험심사팀	정유정	본관17층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황성환	교육연구부
오희순	응급의료센터	이규택	신경과	이정애	병리과	정은영	수술실	최영선	인공신장실	황성희	정형외과
옥상열	홍보팀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정은	고객지원팀	정일웅	의료정보팀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황영순	본관5층
우순희	수술실	이나리	본관10층	이정인	당뇨센터	정임종	응급의료센터	최은영	본관8층	황정선	마취후회복관리실
우정미	고객지원팀	이나영	수술실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최재범	원무팀	황준호	의료정보팀
원혜정	부속실	이두중	핵의학과	이정화	신경과	정정미	본관10층	최정연	대외홍보팀	황희수	영상의학과
원홍석	인사총무팀	이명숙	병리과	이정화	이비인후과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최정훈	2층내과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위영현	약제팀	이명주	약제팀	이정희	본관8층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최종석	영상의학과		
유고은	본관10층	이미경	보험심사팀	이종열	치과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최종은	보험심사팀		
유미화	물류팀	이미경	영양팀	이주영	인사총무팀	정훈	의료정보팀	최진실	본관5층		
유병호	내과중환자실	이미란	신경외과	이주현	본관6층	조경숙	인공신장실	최창순	동관7층		
유선길	건강검진센터	이미자	본관11층	이주현	중앙공급실	조광희	본관9층	최현구	본관8층		
유선정	이비인후과	이미정	본관10층	이지현	심장센터	조구성	영상의학과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유숙	병리과	이미정	인공신장실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조규선	영상의학과	최혜용	고객지원팀		
유영미	본관7층	이민지	본관5층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조문형	원무팀	최희영	QI팀		
유은희	제3중환자실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현주	본관7층	조은영	영상의학과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유정안	중앙공급실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현주	원목실	조인옥	진단검사의학과	하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유정자	본관7층	이새롬	본관11층	이현중	영상의학과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하동근	비뇨기과		
유주량	본관5층	이서윤	본관9층	이혜정	수술실	조현일	시설팀+B342	하은영	약제팀		
유지학	인사총무팀	이선영	본관6층	이호문	영상의학과	조환영	수술실	하지윤	원무팀		
유현영	물류팀	이선화	본관9층	이호용	영상의학과	지미경	보험심사팀	한미경	동관7층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이선희	원무팀	임경숙	사회복지팀	지은아	산부인과	한상운	원무팀		
유현주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성모	물류팀	임경순	신경외과	지혜정	의료정보팀	한수진	본관10층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이성미	이식센터	임다현	본관10층	진수희	내시경실	한승희	수술실		
윤미영	본관8층	이소연	응급의료센터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진춘희	영양팀	한아영	수술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편두통, 병원에 가야 할까요?

몸이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에서 다른 이명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매일 등장하는 조현병,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에서 알려주세요!

사소한 질문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실 곳   prhanyang@gmail.com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Quiz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과 홈페이지의 [한양 토픽]을 참고하여 이름, 휴대폰 번호와 함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8월 18일까지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다양한 최신 장비로 구성된 이 센터는 최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설치되었다. 개인별 맞춤 검진과 특화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방문객들에게 가장 적합한 검진 프로그램을 선별해 제안하고, 교수진과의 신속한 협진 주치의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이 센터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   prhanyang@gmail.com

5+6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첨자

김\*\* dairy\*\*\*@naver.com  
정\*\* jsm\_\*\*\*@naver.com  
방\*\* yh1\*\*\*@hanmail.net  
강\*\* inhye0\*\*\*@naver.com  
김\*\* chaer\*\*\*@gmail.com  
박\*\* sadpsy\*\*\*@naver.com  
조\*\* kett\*\*\*@naver.com  
박\*\* cs\*\*\*@naver.com  
고\*\* bluein\*\*\*@naver.com  
박\*\* Heju\*\*\*@naver.com

Hanyang Calendar					
7 July					
03	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정신건강의학과 음악회
05	수	한양대학교병원	의료봉사	오후 2시	성수종합사회복지관
07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위드 앙상블
14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3시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 알코 대처하기
21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동방현주, 조현철
22	토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후 12시 30분	한양음악밴드 김선영
28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음악회	오전 10시	루게릭병의 가정 간호
8 August					
04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위드 앙상블
11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정신건강의학과 음악회
			건강강좌	오후 7시	내밀음악회
			건강강좌	오후 3시	물은 많이 먹어야 좋은가? 하계 수분 관리
18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25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전재홍 피아노
26	토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전 10시	루게릭병의 진단과 치료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3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수, 금, 토(5주)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3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1주)	수, 금	간질환
	이향락	금, 토(4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화, 토(2주)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지영	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혜영	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은진	토	월~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재하	월~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술기세포치로, 협심증, 고혈압
	신진호	월, 수, 금, 토(4주)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시술
	임영효	수, 금, 토(3주)	월, 수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박진규	월, 화, 목, 토(1,5주)	목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장기설			일반 심장내과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수(1주),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1,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내분비내사 내과 2290-8300	박준성	월, 목, 토(3,5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안유현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최중환	월, 화, 수, 금, 토(1주)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월, 수, 목, 토(4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토(3,5주)	수, 목, 금	일반 내분비내과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손장원	월, 화, 목, 금, 토(4주)		폐결핵, 폐암, 폐렴
	김상현	화, 금, 토(1주)	월, 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박동원	수, 토(3주)	월, 화, 목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구건우	토(5주)	수, 금	일반 호흡기질환
	민지희	목, 토(2주)		
중환자실	구건우	월~금	월, 화, 목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김태연	월~금	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월, 수	목, 금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증,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설인준	화, 목	월, 수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오성희	목, 금	월, 화	소아감염질환
	김남수	월, 수, 금(구), 토(2주)	수, 목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구),토(4주)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 수, 토(1주)	수,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지혜	목	화	소아내분비
	김종덕	월, 수	금	호흡기알레르기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 목, 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로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월, 수	월, 수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 금 (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금, 토(2주)	화,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김영서	월, 화, 토(1,5주)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오기욱	월▲, 금▲,토(4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질환, 두통
	박진석	화, 토(2,4주)	목,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조원호	수, 토(1, 3주)	금	일반 신경과질환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김석현	화, 토(2주)	화, 수,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성원	월, 목, 금, 토(1,3주)	월	중독장애, 노인정신장애, 우울증, 조현병
	민아란	월, 수	금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김강률	목	화, 목	소아정신의학
	노영석	월, 화, 목, 토(2주)	월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화, 금, 토(4,5주)	수, 목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김정은	월, 수, 토(1,3주)	화, 금, 토(1,3주)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권성준	수, 금		위, 십이지장질환, 외과종양학
	권오정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토(1주)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월, 목 (맘모툼)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내분비외과, 갑상선 로봇내시경수술
	하태경	화, 토(4주)	목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월, 토(3,5주)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윤태인	금	화, 수(맘모툼)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김영학	화	화, 금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흉부외과 2290-8461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김혜선	월, 수, 금		일반 흉부(폐, 종격동 및 식도) 질환, 흉강경수술)
	이광현	월, 수, 금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정형외과 2290-8473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토(1주)	화	주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월, 수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해  외  연  수	
	김이석	목, 금	화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이진규	화, 토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조영훈	금	수, 금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공동의		월	슬관절 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김희수	수		수부외과 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김동윤		금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2017년 7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이수진	토(1,3주)	월	일반진료
치과	이영수	목, 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황경균	월, 화, 목	월, 화,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장법,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화, 금	턱알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장법
	한지영	월~금	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월, 화, 목, 금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심광섭	화, 금	수	턱알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이은혜	월, 수, 금	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박훈기	월	목	
	황환식	수	금	
	박계영		월, 수	
가정의학과	하태경		화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직업환경의학과	박계영		화, 수	건강증진의학
	송재철	월, 금, 토(3주, 격달)	월, 수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이수진	화, 금, 토(3주, 격달)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토(4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2주)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 목, 토(2주)	월, 화, 목	강직성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성윤경	월, 화, 수, 금, 토(2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골다공증, 쇼그렌병
	최찬범	월, 수, 금, 토(4주)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베체트병, 건선관절염, 혈관염
	조수경	월, 수, 금, 토(1,2주)	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김 담	화, 금, 토(4주)	화,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남승완	수, 토(3주)	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권혁희	화, 토(4주)	목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안기영	목, 토(1주)	금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김민정	월	수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김형영	금, 토(2주)	화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토(4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해 외 연 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윤호주	화	월, 화, 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토(2,4주)	목, 금	가정의학
	김정현	월, 화, 목, 금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여행자·클리닉	배현주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연환	화, 금	목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 대표전화 : 1644 - 9118

http://guri.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소장, 대장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소화기, 위장관질환
	유교상	화, 수, 토(2,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박찬혁	목, 토(1,3,5주)	수, 금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정재윤	수, 목, 토(2,4주)	화, 금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간암), 소화기질환
	정해룡		화	소화기, 위장관질환
	김순길	월, 화, 목, 금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심장내과	박환철	수, 목, 토(1,3주)	화	고혈압, 부정맥질환
	신정훈	월, 토(2,4주)	화, 수,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이웅구	수, 토(5주)	월, 수, 금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신장내과	한상웅	월, 목,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콩팥병, 사구체신염, 고혈압, 투석요법
	이주학	화, 수, 토(1,2주)	월, 목	만성콩팥병, 당뇨병콩팥병, 고혈압, 전해질이상질환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금, 토(1,2주)	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유성훈	월, 금, 토(3,4주)	화,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류마티스내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이혜순	월, 수▲, 토(3주)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방소영	화▲, 목, 금, 토(2,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수, 목, 토(2,4주)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관리
	문지웅	화, 금, 토(1,3주)	월, 목	만성기침,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결핵, 폐암
	박태선		수	중환자치료, 호흡부전, 폐렴, 기관지내시경
	박연경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토(2,4주)	월, 수, 금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원영웅	월, 수, 금, 토(1,3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예방접종
	김창렬	화, 수, 금	화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수, 금, 토(3주)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화, 목, 토(5주)	화, 목	소아신경질환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김남수		금	소아심장질환
	김지혜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내분비질환, 성장, 의학유전질환
	최영진	월, 목, 토(1주)	월,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강하나	토(1주)	금	신생아
신경과	이영주	화, 금, 토(1주)	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토(3주)	월, 수, 금, 토(2,3주)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고성호	월, 수, 목, 토(2주)	월,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보건사회, 토(4,5주)	월, 화, 목	치매, 뇌졸중, 두통
정신건강 의학과	박용천	월, 화 (보건사회,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김대호	화, 목, 토(1주)	월(클리닉), 화, 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최준호	월, 수, 금, 토(2,4주)	화, 수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신경영생학
	김충현	월, 금, 토(2주)	화, 수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신경외과	김재민	수, 목, 토(3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비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정진환	월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류제일	화, 수, 토(4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목, 금, 토(1주)	월	뇌종양, 뇌정위기능, 두부외상
	나민균		목	뇌종양, 두부외상, 일반신경외과
	원유덕	토(5주)	수, 금	뇌혈관질환, 신경계 손상
흉부외과	노선균	수, 금	화,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맥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월, 수,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 2017년 7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예수	수, 금, 토(4주)	월	퇴행성 및 골다공증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화, 목, 토(5주)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토(3주)	화, 금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양재혁	목, 토(1주)	화,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 손상
	송중훈	화, 토(2주)	월, 목	견관절, 주관절, 외상
산부인과	류기영	월, 목, 토(1,4주)	화, 수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조음파, 태아 이상,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배준은	화, 토(3주)	목, 금	부인종양, 최소침습수술, 복강경수술, 산모
	정언석	수, 금, 토(2,5주)	월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육, 자궁육), 부인암, 산모, 고위험산모
성형외과	최승석	월, 금, 토(5주)	수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이장현	화, 목, 토(2,4주)	화,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미세재건수술,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수, 토(1,3주)	월, 금	안면외상, 육창재건, 피부종괴, 미용성형
외과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이흥기	월, 수, 금, 토(5주)		혈관(대동맥, 경동맥, 당뇨발), 이식, 간염질환
	박현경	목	화, 금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김만규	화, 금	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최민영	목, 토(1주)	월, 화	유방, 갑상선질환
	윤정아	목, 토(2주)	월, 화	대장항문질환
	김현일	토(4주)	수, 금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인과	권준교	화, 토(3주)	월, 금	혈관, 이식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강민호	월, 토(2,4,5주)	화, 금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임한웅	토(1,3주)	화	안성형, 사시, 소아인과
피부과	신용운	월, 금, 토(2주)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이민지			사시, 소아인과, 성형안과
	유희준	월, 화, 금	화, 목	무증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김정수	수, 목, 토	월, 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서현민	화	수, 금	피부미용, 일반피부과질환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수	부비동염, 비종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목, 토(1주)	월,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정재호	금, 토(2,4주)	월, 수, 금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변하영	월, 수, 목		이명, 어지럼증, 소아 및 일반이비인후과질환
비뇨기과	박우성	화, 토(3,5주)	화, 목, 금	비부비동염, 비종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최홍용	화, 목, 토(5주)	목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2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복강경수술, 비뇨기종양, 남성과학
재활의학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김규식	월, 토(3,4주)	수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치과	박원희	월~목, 토(2,5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김윤영	화, 금, 토(1,3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심재환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학과	장태원		화	직업성질환,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변화하는 고객지원센터로  
**한 단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지원센터는 2017년 4월 1일부터 ‘처음 오신 분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에 처음 오신 환자분들의 보다 편리한 병원 이용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관 1층에서 ‘처음 오신 분 전용창구’를 찾아주세요. 또한 원활한 예약 관리를 위해 해피콜센터(02-2290-8114)를 운영하오니 병원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